

정책연구보고서 2016-47

# 대전지역 노동자의 고용 여건 I

박 노 동

최 효 철

최 인 이

박 혜 경



## 연구진

- |      |                       |
|------|-----------------------|
| 연구책임 | • 박노동 /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  |
| 공동연구 | • 최효철 / 대전대학교 경제학과    |
| 공동연구 | • 최인이 /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
| 공동연구 | • 박혜경 /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
| 연구보조 | • 박으뜸 / 도시경영연구실 위촉연구원 |



## <목 차>

제 1 장 서론.....	3
제 1절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3
제 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5
제 2장 고용여건 개념 및 변화 분석 논의 검토.....	8
제 1절 고용여건과 근로실태 개념 정의.....	8
제 2절 대전지역의 고용여건 및 근로실태 분석을 위한 지표.....	13
제 3절 주요지표 분석을 위한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20
제 4절 기존 논의 검토.....	26
제 3 장 대전지역 노동시장 주요 고용지표 분석.....	51
제 1절 대전의 지역경제.....	51
제 2절 대전지역 고용 현황.....	62
제 3절 임금 및 근로시간.....	89
제 4절 기타 고용여건.....	95
참고문헌.....	99

## <표 목 차>

<표 2-1>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고용지표.....	11
<표 2-2> 대전지역 고용여건 및 근로실태 분석을 위한 지표 .....	13
<표 2-3> 지역고용통계의 작성현황 및 주요 내용 .....	28
<표 2-4> 대전지역 고용통계 발표 자료 및 주요 내용 .....	31
<표 2-5> 대전지역 고용통계 추이(2012~2015년).....	35
<표 2-6> 대전·충남북 지역별 노동자의 월 이직률 비교(1997년) .....	36
<표 2-7> 대전지역 노동자 임금 추이(2012~2014년).....	38
<표 2-8> 대전 등 지역별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 비교(1997년) .....	39
<표 2-9> 대전 등 지역별 근무시간·직장만족도 비교(1995년) .....	40
<표 2-10> 대전지역 노동조합 가입 현황(2012~2014년) .....	41
<표 2-11> 대전지역 연령별 취업자 수 추이(2002~2012년) .....	42
<표 2-12> 대전지역 성별 취업자 수 추이(2002~2012년) .....	43
<표 2-13> 대전소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비정규직 비중(2012년) .....	47
<표 3-1> 시도별 순이동자수.....	53
<표 3-2> 지역별 인구 현황 (2005 ~ 2015년).....	54
<표 3-3> 지역별 지역내총생산 및 연평균 증가율 (2005 ~ 2014년).....	55
<표 3-4> 경제활동별 지역내 총생산 구성비 (2014년).....	56
<표 3-5> 대전 지역내총생산 상위 10개 산업 (2014).....	57
<표 3-6> 대전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수.....	59
<표 3-7> 대전 고용집중산업 현황(2014).....	60
<표 3-8> 대전지역의 경제활동인구 상태 추이 (2005 ~ 2015년).....	62
<표 3-9> 성별/연령별 실업률 현황.....	65
<표 3-10> 실업률과 지역경제성장률간의 관계(오쿤의 법칙) 추정 결과.....	66
<표 3-11> 대전시 주요 고용지표 추이 (2010 ~ 2015년).....	67
<표 3-12> 대전 취업자 증가(2010~2015년)의 요인 분해.....	68
<표 3-13> 대전시 일자리의 변동(산업별).....	70
<표 3-14> 대전시 일자리의 변동(직업별).....	71
<표 3-15> 대전시 일자리의 변동(종사상의 지위별).....	72

<표 3-16> 대전지역 노동시장의 고용형태 변화.....	73
<표 3-17> 대전시 일자리의 변동(연령별).....	73
<표 3-18> 대전 연령별-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비중.....	74
<표 3-19> 대전시 일자리의 변동(학력별).....	75
<표 3-20> 지역 고등학교 재학생 수 및 진학률 (2015년).....	75
<표 3-21> 지역 대학별 계열별 재학생 현황 (2015년).....	76
<표 3-22> 지역 대학원 계열별 재학생 현황 (2015년).....	76
<표 3-23> 대전지역 직업별 구인배율 추이.....	77
<표 3-24> 학력별, 임금수준별 구인배율, 취업률, 구인성공률 비교 (2015년).....	80
<표 3-25> 대전의 실업자 및 실업률.....	83
<표 3-26> 대전 실업자의 구직 기간.....	84
<표 3-27> 대전 실업자의 구직 경로.....	84
<표 3-28> 대전 비경제활동인구 현황.....	85
<표 3-29> 대전 구직단념자.....	86
<표 3-30> 구직단념자 비구직사유.....	87
<표 3-31> 비경제활동인구의 주된 활동.....	88
<표 3-32> 3개월 평균임금(2015년)(성별, 연령별, 학력별).....	89
<표 3-33> 3개월 평균임금(2015년)(산업별).....	90
<표 3-34> 3개월 평균임금(2015년)(직업별).....	91
<표 3-35> 3개월 평균임금(2015년)(종사상의 지위별).....	92
<표 3-36> 평균 주당 근로시간(성별, 연령별, 종사상의 지위별).....	93
<표 3-37> 장시간 및 단시간 근로자 비율(성별, 연령별, 종사상의 지위별).....	93
<표 3-38> 지역별 재해천인률.....	95
<표 3-39> 지역별 사망만인률.....	97

## [그림 목차]

[그림 2-1] 전국 주요 시·군별 고용구조 비교(2003~2012년).....	37
[그림 2-2] 대전 및 주요 시·군별 실업률 및 실업급여 신규신청자 증감률 .....	42
[그림 2-3] 대전 및 전국의 비정규직 비중 추이 비교(2003-2012).....	45
[그림 2-4] 대전 및 전국의 비정규직 비중(2012).....	45
[그림 3-1] 인구 추이.....	51
[그림 3-2] 연령별 인구비중.....	51
[그림 3-3] 대전 중장년 인구의 추이.....	52
[그림 3-4] 지역별 중장년인구 비중.....	53
[그림 3-5] 순이동자수(전입-전출) 추이.....	53
[그림 3-6] 대전 사업체수 추이.....	58
[그림 3-7] 대전 종사자수 추이.....	58
[그림 3-8] 산업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비중.....	60
[그림 3-9] 산업별/성별 종사자수 비중.....	60
[그림 3-10]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63
[그림 3-11] 대전 취업자 추이.....	64
[그림 3-12] 대전 연령별 취업자 추이.....	64
[그림 3-13] 고용율 추이.....	64
[그림 3-14] 실업률 추이.....	65
[그림 3-15] 대전지역 Beveridge곡선 (2000~2014. 7).....	77
[그림 3-16] 대전지역 학력별 신규구인자수, 신규구직자수, 취업자수 (2015년).....	79
[그림 3-17] 대전지역 월임금수준별 신규구인자수, 신규구직자수, 취업자수(2015년)...	81
[그림 3-18] 지역별 재해천인율(2014년).....	96
[그림 3-19] 지역별 사망만인율(2014년).....	97
[그림 3-20] 산업재해 추이(대전, 2005-2014).....	98

# 제 1 장

---

## 서론

.....  
제 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 2 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 제 1 장 서론

## 제 1절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

- 최근 장기간 지속된 ‘고용없는 성장’에 따른 고용흡수력 저하와 경기침체가 맞물리면서 지역의 고용사정도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중앙 및 지방정부의 긴요한 정책과제로 등장하였음
- 고용사정의 악화는 특히 고용취약 계층인 청년층, 경력단절 여성, 노년층 등에 게 상대적으로 집중되었으며 고용의 질도 크게 악화되었음
- 임금노동자의 고용여건이 악화되면서 임금근로자로부터 이탈한 실업자를 흡수하는 고용완충지대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영업부문도 과잉공급으로 인한 경영여건의 악화에 따라 영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계상황에 직면하고 있음
- 또한 경제 성장이 여전히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지역의 일자리 상황은 상대적으로 더욱 개선되지 못함. 대전지역 역시 양적인 측면이나 질적인 측면에서 고용 사정이 낙후되어 있음
- 이와 같은 지역의 일자리 위기 상황에 직면하여 정부는 다각적인 고용정책을 실시해 왔음.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고용서비스를 확대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시행해 왔으며 대전을 포함한 각 지방자치단체 역시 한 편으로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위임받아 고용정책을 수행하고, 또 다른 한 편으로는 지역의 실정에 맞는 독자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노력해 왔음
-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층 등 취약계층의 고용사정은 별로 개선되지 못했으며 또한 대부분의 정책이 고용률 제고 등 고용의 양적 확대에만 맞추어짐으로써 고용의 질, 근로자의 삶의 질은 거의 개선되지 못했음. 노동시장 양극화의 심화, 비정규직의 확산, 고용안정성의 저하, 근로소득 성장의 지체 등이 이를 잘 반영함

- 이처럼 노동시장에서 좋은 일자리는 제한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불만과 욕구가 매우 높은 상황임. 지난 지방 선거에서 대부분의 후보들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가장 주요한 이슈로 제기했던 것은, 이러한 전반적인 주민 정서를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음
- 지역간 경제구조가 유사하고 노동시장이 충분히 유동적이라면 지역별 고용여건은 큰 차이가 없을 것임. 그러나 현실에서는 지역별로 경제력의 차이, 산업구조의 차이가 존재할 뿐 아니라 공급되는 노동력의 인구학적 특성이나 인적자본도 동일하지 않고 노동이동도 완전할 수 없으므로 이들 요인이 반영된 노동시장의 수급사정이나 노동시장의 성과 등도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나게 됨. 따라서 일자리정책도 이러한 지역별로 고유한 고용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수립, 집행되어야 그 실효성이 극대화될 수 있음
- 대전 지역 노동시장의 고용여건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대전 지역에 최적화된 고용대책(region-specific employment policy)의 수립도 가능할 것이나 지역 차원에서의 고용여건에 대한 분석은 관련 자료의 한계(예컨대 고용사정을 파악하는 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통계인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시도별 집계자료만 제공할 뿐 원자료의 지역코드는 공개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산업별, 직업별, 종사상 지위별, 취업시간대별, 연령별, 주요 정책집단별 교차 분석이 불가능함) 등의 이유로 인해 빈약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대전 지역의 노동자 고용여건을 양적 측면, 질적 측면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 이 연구의 결과는 지역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정책, 산업정책, 복지정책의 수립, 특히 취약계층의 근로조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의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유용한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함

## 제 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본 과제에서는 우선 대전시 노동자 범위 및 규모, 노동실태, 고용여건 등의 다양한 개념정의와 방법을 소개, 그에 따른 노동자의 규모를 추정하고 특성을 파악하였음
- 지역노동자의 고용실태, 규모,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방법론을 소개하고, 개념에 따른 연구대상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존 논의 검토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함
- 지역노동자의 복지참여, 생활실태, 빈곤화 경향의 결정요인을 장기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분석틀을 이론적 자원에서 검토하고 제시함
- 지역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 실태를 노동시장정책, 조세정책, 소득보장정책, 사회복지서비스로 구분하여 살펴봄.
- 지역노동자의 고용 실태와 정부의 지원정책 실태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 지역노동자를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 제시함
- 본 과제는 대전지역 특정 노동계층을 중심으로 사례 분석 및 조사연구를 2차년도에 걸쳐서 진행예정으로 1차년도에는 주로 고용여건 및 환경에 대한 실태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음
- 따라서 2차 자료와 문헌연구를 통하여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2차년도 본 조사에 앞서 예비 조사 성격의 설문지 항목 개발 등 분석 틀을 만드는 기초연구의 성격이 강함
- 향후 2차년도에는 노동계층의 일상에 대한 구술사 정리 및 각종 기본 자료집과 문건, 언론보도 내용을 검토하여 진행할 예정임



## 제 2 장

---

### 고용여건 개념 및 변화 분석 논의 검토

---

제 1절 고용여건과 근로실태 개념 정의

제 2절 대전지역의 고용여건 및 근로실태 분석을 위한 지표

제 3절 주요지표 분석을 위한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제 4절 기존 논의 검토

---

## 제 2장 고용여건 개념 및 변화 분석 논의 검토

### 제 1절 고용여건과 근로실태 개념 정의

#### 1. 고용여건 및 근로실태에 대한 논의

##### 1) 고용여건과 근로실태의 혼재: 고용지표

- 최근까지 고용여건과 근로실태는 고용지표를 통해 혼재되어진 형태로 조사·분석되어 왔음
- 현실적인 측면에서 노동자들의 고용현황 및 근로현황을 함께 다루는 고용지표를 이용하는 것이 조사 및 분석에 있어 편리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 하지만 보다 실질적으로 한 지역의 고용 및 근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고용여건과 근로실태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하고 이를 분리하여 분석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고용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계약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일종의 배경 및 구조라면 근로 자체는 그 계약이 실제로 근로현장에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임
- 따라서 조사를 위해서는 고용여건과 근로실태를 통합한 형태의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지 몰라도 분석에 있어서는 고용여건과 근로실태를 분리하는 것이 실질적인 근로자들의 삶과 현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논리적인 정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그간 많은 연구들에서 사용되어온 ‘고용’ 개념 및 고용지표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살펴보고 각각의 정의가 정책적 방향성의 측면에서 어떠한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지니고 있는지 분석해 보는 것도 본 연구의 방향 설정을 위해 필요함

### (1) '고용' 개념의 편향성

- 일반적으로 고용(employment)을 노동 혹은 일(labor or work)보다 광범위한 의미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존재하는 데 그 이유는 노동과 일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모두 사용자와의 계약관계를 통해 고용되어져야(employed)하기 때문임
- 그러나 고용의 개념이 다분히 노동자의 입장보다는 사용자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음
- 그 예로 일반적으로 다루어지는 고용지표는 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flexibility)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구성되고 이를 통해 각 나라별로 국가의 노동시장 개입을 줄이고 제도적인 규제를 풀도록 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이상현, 2008)
- 1990년대 이후 약 10년간의 노동시장 유연화 경험을 통해 유연화가 노동시장 성과(고용량 및 고용의 질)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발견되었음
- OECD의 2006년 고용전망 보고서(Employment Outlook)를 보면, 1994년 유연화 정책 조언으로부터 상당히 후퇴한 입장을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렇게 노동시장에 대한 법적 규제가 고용을 악화시킨다는 주장의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은행 등 자본을 다루는 국제기구들은 이 논리가 개발도상국이나 이행국가에게 적용되도록 강제하고 있다는 데 큰 문제가 있음
- 1990년대 이후부터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로 불리는 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은 그 효과에 대한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그 핵심 내용인 노동시장 규제완화를 개발도상국과 이행국가(transition countries)들이 세계은행이나 IMF로부터 지원을 받을 때 받아들여야하는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음
- 지원을 받는 국가들은 노동법 개정을 비롯한 노동시장 규제완화를 약속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IMF의 구제 금융을 지원받은 한국도 예외 없이 노동시장 유연화를 경제정책의 중요 목표로 삼게 되었고, 그에 따라 고용지표의 중요 부분들도 노동시장 유연화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설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세계은행이 제시하고 있는 노동자 고용지표에 관하여 국제노동기구(ILO)가 지적하고 있는 비판점들은 본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음

세계은행의 노동자 고용지표에 관한 ILO이사회 보고서의 주요내용

1. 노동자 고용지표는 투자환경이나 노동시장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서는 부적절하다.
2. 지표화 과정에 심각한 방법론적 기술적 문제가 있다.
3. 노동자 고용지표는 사회보호를 최소화하고 유연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최적의 방법이라는 가정에 입각해 있다. 그 결과 유연성과 안정성의 조화라는 노동시장정책의 기본적 방향을 무시하고 있다.
4. 노동시장 규제가 노동시장 성과를 해치고 비공식 고용(informal employment)을 초래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연구가 없다.
5. 노동자 고용지표와 국제노동기준은 모순적이다.
6. 노동자 고용지표 국가 순위가 노동법개혁의 근거로 사용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출처: [http://www.ilo.org/wcmsp5/groups/public/---ed\\_norm/---relconf/documents/meetingdocument/wcms\\_085125.pdf](http://www.ilo.org/wcmsp5/groups/public/---ed_norm/---relconf/documents/meetingdocument/wcms_085125.pdf)

출처: 이상현(2008), 33쪽.

- 따라서 고용되어져야하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감안하면서 이들이 실제로 어떠한 여건 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으로서의 고용의 형태와 현황으로서의 노동조건 (임금 및 노동시간 등)이 포함된 지표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음

**(2) 고용지표상의 고용여건과 근로실태의 혼재성**

- 세계은행의 고용지표가 지향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노동시장 유연화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한국사회의 고용지표를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고용지표들이 등장하고 있음
- 아래 표는 국내에서 진행된 선행연구들에서 사용한 고용지표를 정리한 것임(한국노동연구원 2012)

〈표 2-1〉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고용지표

구분	ILO(2003)	방하남 외(2007)	김유선(2010)
1. 고용 의 양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청년실업률, 비농임금근로자 비율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비농부문 임금고용 비율, 실업률, 청년실업률, 연간 고용변화율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임노동자 비율
2. 고용 안정	근속1년 미만 비율 임시직 비율	근속1년미만 비율 이직률/평균근속년수 임시직 비율 공공부문 종사자비율	장기근속자비율(10년이상) 단기근속자비율(1년미만) 직장유지율(장기-단기) 근속년수 평균 임시직(기간제) 비율 비자발적 파트타임 비율
3. 임금	저임금근로자비율 (중간임금 1/2) 산업별 평균소득	중위 소득 50%이하 고 용 비율 빈곤율/지니계수 주요 직종 평균소득	연간임금총액 임금불평등(P9010) 저임금근로자비율(중위임금 2/3미만)
4. 노동 시간	장시간 노동비율 불완전 고용률	장시간 근로비율 시간 관련 과소고용비율 주당평균근로시간 연평균유급휴가일수	연간노동시간
5. 산업 재해	산재사상률(10만명당) 근로감독관수(10만명당) 산재보험적용률	산재발생률, 산재강도율 10만당치명적부상빈도 인구10만명당근로감독관	중대재해율
6. 고용 평등	성별 직업분리 여성 관리행정직 비율	비농부문여성위주직종고용 비율, 관리직/고위직여성비율, 고령자 고용률 갭 장애인고용률, 실업률 갭 남녀시간당 소득비	성별고용률 격차 성별 임금격차 성 불평등지수
7. 만족도			생활만족도 직업만족도
8. 노사 관계	노조조직률 단협적용률 파업직장폐쇄	노조조직률, 단협적용률, 파업직장폐쇄 빈도 노조조직률 변화율	노조조직률
9. 사회 보장	사회보장 공적지출 현금소득 공적지원 65세이상 연금수령자비율 연금기여경제활동인구비율 월평균연금액(중간/최저소 득대비)	실업급여 수급률 산업재해 적용률 65세이상 연금수급자비율 GDP대비공공사회보장지출 GDP대비공적연금소득보전 지출액비중 등	GDP대비사회복지지출

- ILO, 방하남, 김유선 모두 비슷한 범주를 기반으로 하여 각 범주별로 다양한 지표들을 사용하고 있음.
- 하지만 세 가지의 고용지표 모두에서 ‘고용여건’ 과 ‘근로실태’ 가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지표 1 고용의 양, 지표 6 고용 평등, 지표 9 사회보장, 지표 2 고용의 안정성 등은 고용여건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지표들은 근로실태를 나타내주는 지표로서 기능할 수 있음

## 2. 대전지역 고용여건 및 근로실태 분석을 위한 지표 설정의 방향성

- 고용여건과 근로실태를 분석할 수 있는 지표를 분리해서 설정하는 것이 요구됨
- 고용의 양, 고용 평등, 사회보장 그리고 고용안정성 등의 지표들은 거시지표로서 대전지역의 노동자들의 노동시장 참여의 조건이 되는 구조적 틀을 보여줌
- 이 지표들은 주로 이미 조사되어진 다양한 통계자료들을 통해 분석해내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고용안정성, 임금, 노동시간, 산업재해, 노사관계, 그리고 만족도 범주에 포함되는 지표들은 대전지역 노동자들의 근로실태를 드러내주는 중요한 지표들로서 노동자들이 실제로 노동현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현실들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함
- 근로실태관련 지표들은 특히 기존의 통계자료를 통한 전반적인 현황과악을 넘어서서 다양한 계층별, 정책집단별, 지역별 접근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임
- 지역연구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계층별 접근은 계층별 서베이와 더불어 다양한 질적 접근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 위의 표를 참고로 하여 대전지역의 고용실태 연구를 위한 적절한 변수들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 제 2절 대전지역의 고용여건 및 근로실태 분석을 위한 지표

### 1. 고용여건 및 근로실태 분석을 위한 주요 지표

- 앞서의 세 가지 연구를 토대로 하여 지역연구 관련 지표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해 보고자 함
- 각 지표는 정규직/비정규직의 각 계층 별로 따로 측정되도록 하여 지역 내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차이점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함

〈표 2-2〉 대전지역 고용여건 및 근로실태 분석을 위한 지표

구분		대전발전연구원 (2016)	
고용 여건	1.고용의 양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비농부문 임금고용 비율, 실업률, 청년실업률, 연간고용변화율, 이주노동자 고용률	
	2.고용 평등	성	성별고용률 격차 성별 임금격차 성 불평등지수 비농부문여성우주직종고용비율, 관리직/고위직여성비율,
		기타	고령자 고용률 장애인고용률, 실업률
	3.사회 보장	실업급여 수급률 산업재해 적용률 65세이상 연금수급자비율 GDP대비사회복지지출	
고용 여건 / 근로 실태	4.고용 안정	장기근속자비율(10년이상) 단기근속자비율(1년미만) 직장유지율(장기-단기) 근속년수 평균 ..... 임시직(기간제) 비율 비자발적 파트타임 비율	

구분		대전발전연구원 (2016)
근로 실태	5.임금	연간임금총액 임금불평등(P9010) 저임금근로자비율(중위임금 2/3미만) 주요 직종 평균소득
	6.노동 시간	연간노동시간 장시간 근로비율 시간 관련 과소고용비율 주당평균근로시간 연평균유급휴가일수
	7.산업 안전	산재발생률 중대재해율 근로감독관 수
	8.만족도	직업만족도
	9.노사 관계	노조조직률, 단협적용률, 노조조직률 변화율

- 수집된 자료들을 통하여 포괄적이면서도 구체적인 대전지역 고용 현황에 관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초적인 지식을 확보함

## 1) 고용여건 관련 지표

- 대전지역 노동자들의 고용여건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고용의 양, 고용평등, 사회보장 등에 포함되는 지표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함

### (1) 고용의 양

- 고용의 양과 관련된 주요 지표로는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비농부문 임금고용 비율, 실업률, 청년실업률, 연간고용변화율 등이 있음

- 경제활동참가율<sup>1)</sup>은 대전지역의 경제활동의 활성화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전반적인 노동시장 참여 가능 인구에 대한 전망을 제공함
- 고용률 및 비농부문 임금고용비율은 대전지역에서 농업을 포함한 전 산업의 노동시장에서 고용 가능한 인구의 규모 및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에서의 고용 가능한 임금노동자의 규모를 추정할 수 있음
- 실업률<sup>2)</sup> 및 청년실업률 데이터는 대전지역 노동시장의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임. 실업률은 그 나라 혹은 지역 경제의 건전성 여부를 보여주는 주요지표가 됨
- 최근 들어 한국사회 전반에 걸쳐 주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실업률을 통해서 타 지역에 비해 학생 및 청년 층 연구 인력이 집중되어 있는 대전지역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 (2) 고용 평등

- 고용평등과 관련한 지표는 크게 양성평등관련 지표와 소수자 고용권 관련지표라고 할 수 있음
- 성별 고용률 격차, 성별 임금격차, 성 불평등지수, 비농부문 여성위주직종 고용비율, 관리직/고위직 여성비율 등은 대전지역 고용여건으로서의 양성평등 현황을 분석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들임
- 대전지역의 소수자 고용권 관련 지표로 이용할 있는 데이터들은 고령자 및 장애인 고용률과 실업률 지표라고 할 수 있음

1) 노동 가능 인구에 대한 경제 활동 인구의 비율을 경제 활동 참가율이라 한다. 노동 가능 인구는 15세 이상의 모든 인구를 뜻하며, 경제 활동 인구와 비경제 활동 인구로 구분된다. 경제활동인구는 15세 이상의 인구 중 근로의 능력과 의사가 있는 사람들로서 실업자와 취업자를 모두 포함한다. 취업자는 경제 활동 인구 중 근로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자이다. 실업자는 근로의 능력과 의사가 있지만, 실직 상태인 사람들을 뜻한다. 비경제 활동 인구는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일할 의사가 없거나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전업주부, 학생, 노약자, 구직 단념자 등이 포함된다.

2) 실업률은 경제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고용 지표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구직 단념자처럼 사실상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을 실업자로 분류하지 못하는 등 고용 동향을 파악하는 데 한계를 보이기도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실업률의 보완 지표로서 고용률을 발표하고 있다. 고용률은 취업자가 노동 가능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로서, 취업자의 증감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고용평등 관련 지표들은 대전지역의 고용여건을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틀로서 노동시장의 성격을 드러내줄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 할 수 있음

### (3) 사회보장

- 사회보장 관련 지표인 실업급여 수급률, 산업재해 적용률, 65세이상 연금수급자비율, GDP대비 사회복지비지출 등은 대전지역의 노동자 및 은퇴자들에 대한 복지수급율을 보여주는 중요한 데이터들임
- 특히 GDP대비 사회복지비지출은 대전지역의 사회복지상황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 할 수 있음
- 실업급여 수급율, 산업재해 적용률의 경우는 대전지역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고용된 노동자 및 잠재적 노동자들이 수혜할 수 있는 기본적 복지 수준을 드러내주는 주요 지표임
- 65세이상 연금수급자비율은 은퇴자들의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되며,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고령취업자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변화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음

## 2) 고용여건 및 근로실태를 포괄하는 지표: 고용 안정관련 지표

- 고용 안정관련지표는 고용여건 및 근로실태를 포괄하는 지표로서 활용가치가 있다고 보여짐
- 대전지역의 장/단기근속자비율, 직장유지율, 평균근속년수 등을 통해 정규직 및 비정규직의 비율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전지역 노동시장의 성격을 규명해볼 수 있음
- 또한 임시직(기간제) 및 비자발적 파트타임 노동자 비율을 통해 대전지역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의 규모와 이들이 집중되어 있는 직종, 산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기간제, 단시간 노동자를 포함하는 다양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양적 데이터를 통해 이들의 근로실태에 대한 추론이 가능함
- 비정규직이 산업전반에 걸쳐 도입된 이후 노동자들의 근로실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고용의 안정성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고용 안전관련 지표는 구조적인 고용여건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인 동시에 노동자들의 일 자리의 질과 근로환경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근로실태 지표로서도 활용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음

### 3) 근로실태 관련 지표

- 대전지역 노동자들의 근로실태를 임금, 노동시간, 산업안전, 근로 및 직장 만족도, 노사관계 등을 모두 포함하는 광범위한 자료 수집을 통해 파악하고자 함

#### (1) 임금

- 임금은 노동자들의 근로실태 파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음
- 노동자들의 임금현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이용할 수 있는 주요 자료는 연간 임금총액, 저임금근로자 비율(중위임금 2/3 미만), 주요 산업별, 직종별 평균 임금 등을 들 수 있음
- EU(유럽연합) LoWER(Low Wage Employment Research Network, 저임금고용연구네트워크)는 ‘임금노동자 중위임금의 2/3 미만’을 저임금 계층, ‘중위임금의 2/3 이상 3/2 미만’을 중간임금 계층, ‘중위임금의 3/2 이상’을 고임금 계층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중위임금 2/3미만의 임금근로자 비율을 통해 저임금근로자 비율을 추정해볼 수 있음
- 임금현황을 불평등의 관점에서 접근하기 위해서 사용 가능한 데이터는 임금불평등(P9010)임. P9010은 상위 10%와 하위 10% 임금격차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임금불평등에 따른 격차를 드러내주는 자료라 할 수 있음

## (2) 노동시간

- 노동자들의 근로실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서 노동시간을 들 수 있음
- 우리나라는 이미 OECD국가 중 장시간 노동을 하는 대표적인 국가임
- 대전지역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 노동시간과 관련된 지역의 특성이 존재하는 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함
- 노동시간 관련 데이터로는 연간노동시간, 장시간 근로비율, 시간관련 과소고용 비율, 주당평균근로시간, 연평균유급휴가일수 등을 들 수 있음
- 이중 특히 장시간 근로비율과 시간관련 과소고용비율의 경우는 현재 일자리 부족과 관련한 실업문제의 해결 방안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는 데이터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보여짐
- 노동시간은 임금과 더불어 노동자들의 실생활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지표로서 근로실태에 대한 분석을 넘어서서 노동자 삶의 질에 대한 연구와도 연관이 깊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강조됨

## (3) 산업안전

- 산업안전은 노동자들의 근로의 질을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음
- 최근 들어 간접고용 비정규직 즉 외주화의 문제와 산업안전의 문제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산업안전 지표와 관련된 데이터들로는 산재발생률, 중대재해율, 근로감독관 수 등을 들 수 있음
- 대전지역의 경우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연구기관들이 다수 포진해 있고 그 내부에서 다양한 산업재해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산업재해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연구기관들 및 제조업체 등에 대한 현황 분석이 반드시 필요함
- 최근 들어서는 유통업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산업에서도 노동자들의 근골격계 질환 및 직무스트레스,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재해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산업안전의 관점에서 가능한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음

#### (4) 근로 및 직장 만족도

- 근로 및 직장 만족도는 노동자의 근로실태를 종합적으로 대변하는 주요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음
- 특히 고용안정성, 임금, 근로시간 등이 만족도와 강한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직장 및 근로만족도는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 간의 근로실태의 차이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음. 이는 앞으로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가속화될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을 드러내 주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5) 노사관계

- 노사관계는 노동자들의 근로실태를 구성하는 동시에 근로실태를 개선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라는 점에서 중요함
- 지역적으로 노조조직률, 단협적용률, 노조조직 변화율 등을 분석하는 것을 통해 현재 대전지역의 노동조합의 수준 및 노사관계 상에서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노동조합조직률의 변화가 비정규직의 규모 변화와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지역적 노동시장의 특성과 노사관계 간의 관계성을 분석하는 데 있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 제 3절 주요지표 분석을 위한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 1. 대전지역 노동자들의 고용여건 및 근로실태 분석을 위한 연구대상 : 계층별, 정책집단별, 지역별 접근 필요

- 각 정책집단 별 고용여건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청년, 여성, 베이비부머, 장애인, 노년층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분류하고 이를 토대로 집단별 분석을 시도함
- 대전지역의 산업특수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분야 및 문화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고용여건 관련 자료 수집
- 대전지역 고용여건을 고용의 질의 측면에서 분석하기 위해 비정규직 및 중규직(무기계약직 등)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의 수집
- 대전지역 비정규직의 현황을 다른 지역과 비교하고,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수행하여 비정규직의 일자리 선택 동기, 근로조건, 부당대우 및 차별 경험, 일자리에 대한 만족 등을 분석함
- 대전지역 고용구조를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각 지역별 고용구조의 특성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함
- 따라서 각 구 단위로 산업별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고용구조의 특성을 연관지어 살펴보아야 함
- 대전지역에 고용되어 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1) 대전지역의 계층별 고용 및 노동지표 관련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타 지역과 비교하여 분석하고, 2) 각 정책집단별 고용 및 노동지표 관련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타 지역과 비교·분석하여 대전지역의 고용구조의 성격 및 특성을 파악함
- 타지역과의 비교 분석을 넘어서, 실제로 대전지역 내부에서 관찰되는 다양한 고용관련 이슈들을 분석하기 위해 대전지역의 각 구 단위별 고용구조의 특징을 비교·분석하는 것이 중요함

- 연구대상을 고용되어 직업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한정할 경우, 현재 한국사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특수고용 및 자영업자를 어떠한 방식으로 다루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요구됨
- 이미 한국사회에서 이슈화 되어진 특수고용 종사자들의 노동자성에 대한 부분을 이 연구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한국사회에서의 자영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본사와의 관계에서 가맹점주들의 종속성 등)을 파악하여 이들의 고용여건 및 근로실태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음

## 2. 연구방법: 양적 연구방법과 질적연구 방법의 조화

- 이 연구는 대전지역 고용실태를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문헌연구 및 양적 자료 분석, 전문가 활용, 질적 연구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1) 문헌연구

- 문헌연구에서는 전국적 차원의 지역노동시장 분석 및 ‘고용의 질’ 지표 개발과 관련된 논의, 대전지역 노동시장을 분석한 기존 문헌들을 분석
- 기존 문헌에는 학술 논문 및 연구보고서, 대전시에서 생산한 각종 고용관련 문건 등이 포함됨
- 기존문헌의 의의와 한계점을 토대로 본 연구의 차별화된 관점을 정립하고 구체적인 연구계획을 구성함

### 2) 자료 분석

- 대전지역의 고용의 양 및 질과 관련된 중앙정부의 조사통계, 행정통계,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된 기존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분석

- 노동공급 측면 자료로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지역별 고용조사』, 『한국노동패널조사』 등을 집계하여 활용
- 노동수요 측면 자료로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광업제조업조사』, 『산업단지현황』, 『지역별 사업체노동력조사』 등을 집계하여 활용
- 이 밖에 『워크넷』, 『고용보험 DB』 등을 중심으로 구인, 구직,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된 통계자료를 확보하여 분석
- 이 밖에 정책 집단별 심층 분석을 위해서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고졸자취업조사』, 『여성가족패널』, 『고령화연구패널』,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등 자료를 추가적으로 활용
- 대전광역시에서 매년 실시하는 『사회지표조사』 중 경제(고용 및 근로)파트의 활용

### 3) 전문가 활용

- 통계 자료 분석 결과를 보완하고 구체적인 문제과약 및 정책대안 도출을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전문가의견 청취
- 지역고용학회와 연계하여 고용연구 전문가 확보 및 연구관련 의견 청취
- 대전지역의 노동시장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대전지역의 지자체, 고용센터, 사업체, 사용자단체, 노동조합, 시민단체, 지역 연구기관의 전문가와 접촉하여 정보 수집

### 4) 질적연구: 심층면접

- 통계자료의 분석을 통해 확보한 정보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대상을 중심으로 심층면접을 실시 할 수 있음
- 특히 통계자료만으로 파악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는 비정규직 고용여건 및 근로실태와 관련해서는 심층면접을 통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함
-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여건 및 근로실태에 있어서의 차별에 대한 사항은

서베이 등의 양적 조사로 파악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존재하므로 심층면접을 통해 기존의 정보에 대한 보완을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정규직 노동자들 중에서도 고용평등의 측면에서 여전히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정책대상 집단(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등)들을 중심으로 질적 자료를 다양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이들에 대한 조사 역시 개인단위의 심층면접 혹은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질적으로 우수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방법이 될 것임
- 심층면접은 대전지역의 산업구조 및 고용구조에 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여 분석한 후 면밀한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심층면접은 주로 다음의 가이드라인 질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임

### <심층면접을 위한 가이드라인>

#### 1. 취업의 자발성 여부 및 취업 이유

- 현재의 직업 및 고용지위(employment status)가 본인이 원한 것인지의 여부
- 현재의 직업 및 고용지위를 가지게 된 이유

#### 2. 취업의 경로

- 현재의 직업을 가지게 된 구체적인 경로

#### 3. 취업기간 및 이직의 경험

- 현재의 직업에 종사한 기간
- 현재의 직장 이전에 다른 직장을 가진 적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몇 개의 직장? 기간?

#### 4.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 5. 임금

- 현재의 직업에서 받는 임금의 수준 (이직을 했다면 이전 직장과의 비교)
- 임금의 형태 (시급, 일급, 주급, 월급, 연봉, 실적급 등)
- 임금의 책정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아는지? (기본급, 수당의 비율..)

#### 6. 노동조건

- 근무형태가 어떠한 지?
- 하루 평균 노동시간
- 시간외 근무의 여부(수당 지급의 여부)
- 노동강도
- 업무 만족도
- 조직 만족도
- 업무 상 혹은 조직 내에서 느끼는 불만 사항 혹은 어려움
- 직장생활 혹은 업무 중 물리적인 재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
- 직장생활 혹은 업무 중 정신적인 재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
- 업무가 감정노동의 영역에 해당되는지?

#### 7. 노사관계

- 노동조합의 유무
- 노동조합 가입 유무
- 가입 혹은 가입하지 않은 이유
- 업무상 혹은 직장 내 불만 해소 방안

## 8. 근로 복지

- 4대 보험 가입 유무 (직장가입)
- 회사에서 제공되는 복지제도는 어떤 것이 있는지?
- 제공되는 복지혜택을 받는 데 있어 내가 속하지 않은 집단(정규직, 남성, 비장애인, 한국인 등)과 비교해 볼 때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 교육 및 훈련의 기회가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지는 지?
- 입사 및 승진에 있어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 경험한 차별이 있었던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했는지?

## 9. 일/가정 양립

- 종사하고 있는 직업으로 인해 가정생활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
- 가사일(양육포함)은 누가 주로 담당하고 있는지?
- 여성의 경우 출산휴가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지 혹은 사용할 예정인지?
-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지 혹은 사용할 예정이 있는지?

## 10. 사회보장

-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험이 있는지?
- 사회보장제도의 수혜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은?

## 제 4절 기존 논의 검토

○ 이 절에서는 대전지역 근로자의 고용<sup>3)</sup>여건 실태를 분석하기에 앞서, 고용여건에 대하여 고찰한 기존의 논의들을 검토하고자 함

- 고용여건은 취업률, 고용률, 실업률 등 고용 상황을 형성하고 있는 ‘고용구조(고용기회)’와 실제 고용 상태에 있는 근로자의 ‘노동조건(근로조건)’을 포괄하는 개념임(방하남 외, 2007: 6-9)
- 고용여건 실태는 고용현황과 고용의 특징 등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노동통계, 고용통계 등을 통해 논의되어 왔으나 지역고용통계의 경우는 절대적인 생산량 부족, 수량 중심의 생산방식 등으로 정책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지역 간 고용 현실의 차이와 지역별 고용특성 등을 밀도 있게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가 제공되지 못함으로써 지역의 고용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자료의 활용도 및 가치가 매우 낮게 형성되어 있음

○ 따라서 이 절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검토하고자 함.

- 먼저, 지역 고용여건의 가늠자에 해당하는 지역고용통계와 관련한 생산현황 논의들을 정리해보려고 함
- 다음으로, 대전지역 고용통계의 생산구조와 작성현황에 대한 논의들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함
- 그러나 궁극적으로 본 연구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대전지역 고용여건(고용구조, 노동조건) 논의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함으로써 1차년도 연구에 필요한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2차년도 연구의 조사항목 발굴에 시사점을 얻고자 함
- 추가적으로는 과학기술도시라는 대전지역의 특수성에서 등장하는 과학기술노동자의 고용여건 문제와 청년실업의 증가를 살펴봄<sup>4)</sup>

3) 고용(雇傭, employment)은, 현행 민법에 따라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 제공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 지급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정의되어 있다(김기선, 1981: 41). 따라서 고용은 쌍무계약의 의미를 가지며, 그 결과 고용과 관련한 다양한 개념들은 ‘노동 제공자-보수 지급자’라는 연동 개념으로 이해된다.

# 1. 지역고용통계의 정의와 생산현황 논의

## 1) 지역고용통계<sup>5)</sup>의 정의

○ 지역고용통계는 지역통계와 고용통계가 합하여진 개념임

- 지역통계란, 일반적인 통계의 정의에 공간적 개념을 추가한 것으로 공간적 범주를 갖는 통계수치는 모두 포함한다고 볼 수 있음

- 고용통계는 노동수요가 갖는 파생수요로서의 특징으로 인하여 경제·산업의 구조적 측면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또한 동태적 변화를 파악하는 데 주목적이 있는 기초통계임(최봉호, 2009: 30; 김을식 외, 2010: 12-14)

○ 따라서 지역고용통계는 작성분야, 작성주체, 지역단위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음

- 일반적으로는 ‘다양한 기준의 공간적 범주를 갖는 노동시장, 노사관계, 노동력의 재생산과 직접적·간접적으로 연관된 통계 전반’으로 정의할 수 있음

- 그러나 직접적으로는 ‘지역의 고용, 노동, 임금과 관련된 통계 지표와 이와 관련된 통계’만을 지역고용통계로 분류함. 이상호 외(2012: 23-24)는 지역고용통계를 “공표지역이 광역시·도 혹은 그 이하이면서 고용/노동/임금 분야의 통계지표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통계”라고 정의함

○ 이렇게 볼 때, 대전지역 고용통계는 “대전광역시를 공표지역으로 한정하는 노동시장, 노사관계, 노동력의 재생산과 관련된 통계 전반으로 직접적으로는 대전지역의 고용·노동·임금 분야의 통계지표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통계”로 정리할 수 있음

---

4) 기존 논의 검토는 앞서 2-2.에서 제시한 주요 고용지표를 중심으로 요약하였다.

5) 지역고용통계는 지역노동통계라는 용어와 혼용해서 쓰인다. 여기에서는 지역고용통계로 통일하여 서술하였다.

## 2) 지역고용통계의 생산현황

-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가가 승인한 지역고용통계는 총 6개 기관에서 작성한 13종에 이룸<sup>6)</sup>
- 작성방법에 따르면 조사통계가 10종으로 가장 많고 행정자료를 집계한 보고통계가 2종(고용보험통계와 워크넷인구직 및 취업동향), 기존의 자료를 재가공한 가공통계가 1종(사업체노동실태현황) 등임
- 작성기관별로는 한국고용정보원 5종, 고용노동부 3종, 통계청 2종, 한국노동연구원·지식경제부·전라북도가 각 1종을 생산하고 있음. <표 2-3>은 이를 요약·정리한 것임(이상호 외, 2012: 29-30)

**<표 2-3> 지역고용통계의 작성현황 및 주요 내용**

작성 방법	작성기관	조사명	주요 조사 내용	조사 주기
조사 통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률 등	매월
		지역별고용조사	시군별 고용률, 실업률, 비경제활동인구, 일자리 특성 등	분기별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현원, 빈 일자리, 임금, 근로조건 변동 추이 등	매월
		직종별사업체 노동력 조사	현원, 부족인원, 채용계획인원 등	분기별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 이동경로조사	대졸자의 직업이동경로 및 고용형태, 임금 등	매년
		청년패널조사	청년층 경제활동, 고용, 임금, 구직활동 등	매년
		고졸자 취업진로조사	대학 미진학자의 노동시장 진입과정과 구직활동 등	매년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개인의 경제활동상태, 일자리 특성, 구직, 교육, 훈련 등	매년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인력 수급동향실태조사	이공계 전문인력 현황, 채용예정인력, 부족인원 등	매년
	전라북도	직종별사업체노동력 조사(전라북도)	(전라북도 지역) 현원, 부족인원, 채용 계획인원 등	반기별

6) 이러한 지역단위의 고용통계는 2005년 2월 현재 국가통계(134개 작성기관에서 총 476종 작성)와 비교해 절대적으로 적은 생산량이다(오갑원, 2005; 이상호 외, 2012: 22).

작성 방법	작성기관	조사명	주요 조사 내용	조사 주기
보고 통계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신규 사업체 수, 피보험자 수, 실업 급여 신청자 수 등	매월
		워크넷구인구직DB	구직자 수, 구인인원, 구인배수	매월
가공 통계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실태현황	사업체 및 종사자 수, 조직형태, 사업체 구분, 사업의 종류 등	매년

\* `한국노동패널조사의 경우 2009년 12차년도 실사까지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진행되다, 2010년 이후 한국고용정보원으로 이관됨. 그러나 현재 제공되는 원자료 전체(1~11차년도)의 저작권이 한국노동연구원에 있으므로, 여기서는 한국노동연구원 자료로 분류함.

자료: 통계청, 「승인통계목록」(2011년 12월 12일 기준)(이상호 외, 2012: 30. 에서 재인용).

- <표 2-3>에서 살펴보듯이, 통계청이 분기별로 시·군별 고용률, 실업률, 비경제활동인구, 일자리 특성 등을 조사하는 ‘지역별고용조사’ 만이 각 지역의 고용 추이 및 특성을 다소나마 세밀하게 제공하고 있음. 그 결과 국가기관이 생산하는 지역고용통계로부터 각 지역이 얻을 수 있는 데이터 값은 상당히 포괄적이며, 전체적인 형태를 파악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은 대전지역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 2. 대전지역 고용통계의 생산현황 검토

### 1) 대전지역 고용통계의 작성현황과 특성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전지역의 고용통계는 일차적으로 <표 2-3>의 국가승인통계를 데이터 소스(data source)로 삼고 있음
- 이 자료들은 동일한 조사항목을 기준으로 작성된 전국의 시·도별 데이터를 한 눈에 비교하여 볼 수 있기 때문에 대전을 포함한 각 지역의 고용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그러나 분석수준을 더 낮추어 대전의 각 구(區)별 고용구조 및 근로자 노동조건 등을 탐색하고자 할 경우에는 한계가 뚜렷함<sup>7)</sup>
- <표 2-4>는 2016년 현재 대전지역에서 고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고용통계’를 작성·발표하고 있는 주요 기관별 현황 및 조사 내용을 요약한 것임
- 표 내용에 따르면, 대전시는 매년 <대전통계연보>, <대전시정백서> 등을 통해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일자리 창출, 노동조합 및 노사분규 현황, 직업훈련, 전국 및 국제 통계 등을 발표하고 있음. 분기별로는 ‘대전경제주요지표’를, 매월 ‘대전 고용동향’을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핵심적인 고용통계는 모두 통계청에서 작성한 월별 고용동향에 기반하고 있음.<sup>8)</sup> 따라서 핵심 고용통계를 자체적으로 생산하지 않고 있는 상태임
- 대전시 산하 5개 구청은 분기 또는 반기별로 노동(노동조합수, 남녀 조합원 수), 산업체 통계 등을 작성하여 <통계연보>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항목 수가 매우 적은데다 통계청이 생산하는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등의 통계를 수록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실질적으로 활용할만한 구청별 고용통계 자료를 얻기는 어려운 상태임(대전광역시 각 구청, 2016)

7) 심상완·정성기(2007: 237-239)의 연구에 따르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는 시·도 지역 단위 또는 구·시·군 소지역 단위로 작성 공표되는 노동시장 통계는 2007년 통계청 작성 현황 기준으로 총 15종류로, 그 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빈약하다.

8) 대전시는 또 대전발전연구원과 공동으로 발행하는 월간 <대전경제>를 통해 대전지역의 고용통계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 데이터 역시 통계청 산하 충청지방통계청에서 생산하는 자료를 소스(source)로 하고 있다.

〈표 2-4〉 대전지역 고용통계 발표 자료 및 주요 내용

분류	작성기관	발행물/형태	주요 내용	발표 주기
행정 기관 · 연구 기관	대전광역시	월별 고용동향 (충청지방통계청 작성)	15세이상인구,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취업자·실업자 동향	매월
		대전경제주요지표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취업자 수, 고용률, 취업구조, 실업률, 청년실업률, 일자리 창출	분기별
		대전시정백서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일자리 창출	연간
		대전통계연보 (e-book)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수, 노동조합 현황, 노사분규, 직업훈련, 전국통계, 국제통계	연간
	대전광역시 · 대전발전연구원	월간 대전경제	경제활동인구, 실업률, 고용률	매월
	市 산하 5개 구청	구별 통계연보	노동조합 수, 남녀 조합원 수	분기별 반기별
기타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보고서	각종 고용지표별 통계	부정기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고서	각종 고용지표별 통계	

자료: 대전광역시, 시 산하 5개 구청,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에서 종합.

- 다만, 대전시의 경우는 새로운 사회변수의 등장, 트렌드의 출현 등에 발맞추어 여러 분야의 지역 통계를 ‘분석통계’ 라는 범주로 묶어 발표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에는 대전의 고용통계와 관련한 데이터를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재가공·분석한 자료가 제시되어 있음
- 대표적인 발표 자료로는 ‘대전의 최근 경제활동 모습’, ‘대전 베이비부머의 모습’, ‘대전광역시 청년세대 분석’ 등이 있음(대전광역시, 2016)

- 이 외에 대전지역의 고용관련 통계를 다루는 기타 기관으로는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등이 있음(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2016; 대전지방고용노동청, 2016)
  - 그러나 이들 기관들은 간헐적으로 또는 특정한 필요 시기에만 지역 고용통계를 작성·발표하고 있음
  - 더욱이 데이터 생산의 조사 범주, 기준, 항목, 내용 등이 통일되어 있지 않는데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지표의 개발 등은 시도되지 못하고 있음
  
- 이밖에 대전상공회의소,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대전고용복지센터 등의 지역 기관들은 기업동향, 경기전망, 일자리 안내, 창업 지원 등의 형태로 전반적인 고용환경의 흐름을 안내하고 있는 상태임. 사업체 현황, 1차~3차 산업 현황 등 전반적인 고용환경에 해당하는 통계는 대전시와 각 구별 정기간행물 등에도 모두 공통적으로 제시되고 있음

## 2) 대전지역 고용통계 생산의 개선점

- 대전시와 5개 구 연계로 자체적인 지역고용통계 생산 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필요성은 대전지역의 고용 특성을 세밀하게 파악함으로써 이를 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함임
  
- 앞서 살펴본 내용을 중심으로 대전의 지역고용통계 생산과 관련한 특징 및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첫째, 경제활동인구 및 경제활동참가율, 취업자 동향 및 취업률, 실업자 동향 및 실업률 등 고용통계의 기초에 해당하는 데이터의 경우 충청지방통계청의 자료를 제공받아 발표되고 있음. 따라서 자체적인 고용통계 생산 과정이 없음. 또, 그 결과 대전지역의 특성을 세밀하게 반영하는 통계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함

- 둘째, 대전시 산하 5개 구별 <통계연보>에는 고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항목으로 ‘노동’ 항목만이 설정되어 있음. 이 항목에는 단위노동조합 및 산업연맹별 노동조합 수와 각각의 조합에 소속된 조합원 수가 주요 업종별로 소개되어 있음. 즉, 경제활동인구 및 경제활동참가율, 취업자 동향 및 취업률, 실업자 동향 및 실업률 등 고용통계의 기초에 해당하는 각 구청별 데이터는 제공되지 않고 있음. 그 이유는 충청지방통계청이 생산, 공급하고 있는 고용통계 자료의 대부분이 대전광역시 등 16개 시·군 단위에서 작성되고 있기 때문임. 이에 따라 개별 구의 고용 특성이 반영된 데이터 자체가 부재한 상태임

○ 대전시의 지역고용통계 생산과 관련한 이러한 특징 및 문제점을 토대로 대전 지역 고용통계 생산의 개선점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음

- 첫째, 밀도 있는 지역 고용정책의 수립 및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대전시 산하 5개 구별로 자체적인 데이터 생산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 둘째, 이러한 데이터 생산 체계를 통해 5개 구별 특성이 보다 정밀하게 반영된 데이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지표 개발 및 통계작성 업무가 새로 설정되어야 함
- 셋째, 효과적인 구별 데이터 생산을 위해 현재 충청지방통계청이 사용하고 있는 기법과 업무 매뉴얼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이를 위해 지역 고용통계 작성을 전담할 인력 및 예산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3. 대전지역 고용여건 논의 검토

○ 여기에서는, 3장의 주요 고용지표별 분석에 앞서 지금까지 대전지역 고용여건과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들을 제시한 학술 연구 논문, 정책기관의 연구 보고서, 행정기관 제공 자료, 언론기관 보도자료 등을 수집한 뒤 구체적인 논의의 내용들을 검토하고자 함

- 여러 고용지표들은 효과적인 내용 검토를 위해 고용 안정성, 노동 조건, 고용 복지, 고용평등의 4가지 영역으로 범주화함
- 논의 자료들은 시계열적 흐름에 따라 정리함으로써 대전지역 고용여건의 변화상을 파악하기에 용이하도록 함
- 검토한 논의 내용을 토대로, 대전지역 고용여건 실태를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려면 어떠한 지표 및 작성 기법이 필요한지 간략하게 제시할 것임

## 1) 고용 안정성 논의

- 고용의 안정성과 관련한 주요 지표로는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이직률 등을 들 수 있음
  - 대전지역의 고용 안정성과 관련한 여러 논의 자료들은 통계청, 대전광역시,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고용정보원 등에서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여기서는 이외에 한국은행대전충남본부의 ‘대전지역 고용의 특징 및 시사점(2013)’, 남기곤의 ‘대전·충청지역의 노동시장 구조에 관한 연구(1998)’ 등의 자료들을 종합하여 검토함
  - 검토 내용을 토대로 대전지역 고용 안정성 통계의 특징을 요약하고 그 의미를 평가하고자 함
- 대전지역의 2015년 말 현재 경제활동참가자는 전체 생산가능인구 1,293명 중 805명이며, 경제활동참가율은 62.2%임
  - 같은 2015년 기준으로 대전의 취업자 수는 777천명이며 따라서 고용률은 전국 평균(60.3%)보다 약간 낮은 60.1%로 나타남. 15~64세의 고용률도 전국 평균(65.9%)보다 다소 낮은 65.3%를 기록하고 있음
  - 반면 실업률은 2015년 말 현재 3.5%로 전국(3.6%)과 비교해 약간 낮은 수준으로 집계되어 있음(과학경제국, 2016; 대전광역시, 2015; 통계청, 2016)

- <표 2-5>은 2012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총 4개년에 걸쳐 대전지역 고용통계의 추이를 요약·정리한 자료임(과학경제국, 2016)
- 이 표에 따르면 대전은 경제활동참가자수, 경제활동참가율, 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률 등 모든 지표에서 고용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음

**<표 2-5> 대전지역 고용통계 추이(2012~2015년)**

(단위: 천명, %)

분류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경제활동인구	753	759	792	805
경제활동참가율	59.7	59.5	61.5	62.2
취업자 수	726	736	765	777
고용률(대전/전국)	57.5/59.4	57.7/59.5	59.4/60.2	60.1/60.3
실업률(대전/전국)	3.7/3.2	3.1/3.1	3.4/3.5	3.5/3.6

자료: 과학경제국, 2016. 7. 1., “대전경제 주요지표.”, 대전광역시.

- 대전지역 노동자의 이직률(월 기준)은 전국보다 낮아 비교적 고용 안정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남기곤(1998)이 연구논문에서 제시한 <표 2-6>에 따르면 1997년 현재 대전지역 전체의 노동자 이직률(월 기준)은 1.99%로, 전국 평균 2.83%보다 현저히 낮으며 광역시의 이직률(2.75%)과 비교해도 상당한 안정성을 나타내고 있음
- 특히,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 등 통상적으로 이직률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3차 산업에서도 대전지역 노동자의 이직률은 전국 평균(2.52%)과 광역시 평균(2.45%)보다 낮은 1.95%를 기록하고 있음

〈표 2-6〉 대전·충남북 지역별 노동자의 월 이직률 비교(1997년)

(단위: %)

구분	대전	충남	충북	전체	광역시	도
〈전체 평균〉	1.99	2.85	2.91	2.83	2.75	2.94
〈성별〉						
남자	1.83	2.26	2.55	2.54	2.38	2.62
여자	2.43	4.23	3.63	3.59	3.63	3.73
〈규모별〉						
10~29인	2.87	2.80	3.60	3.95	3.53	4.04
30~99인	2.15	2.76	2.91	3.10	3.06	3.21
100~299인	2.15	3.96	3.94	2.80	2.72	2.87
300~499인	1.09	2.45	2.51	2.11	2.16	2.53
500인 이상	1.04	1.59	1.32	1.68	1.72	1.62
〈산업별〉						
광업	2.08	13.11	3.89	2.65	4.75	3.61
제조업	2.08	3.33	2.99	3.15	3.22	3.22
사회간접 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	1.95	1.89	2.76	2.52	2.45	2.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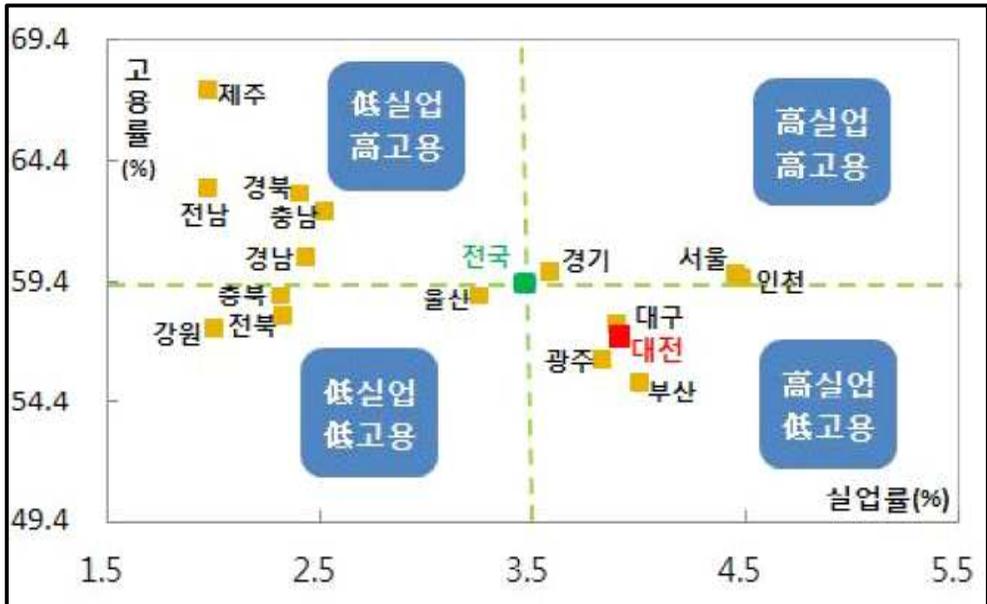
자료: 남기곤, 1998. "대전·충청지역 노동시장 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pp. 22. 에서 재인용<sup>9)</sup>

- 종합하여 볼 때, 대전지역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성은 여러 기초 고용지표들의 추이를 고려할 경우 비교적 양호하다고 판단됨
- 이 표에 따르면 대전은 경제활동참가자수, 경제활동참가율, 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률, 이직률 등 모든 지표에서 고용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거나 양호한 상태임

9) 이 자료의 본래 출처는 노동부, 「매월노동통계특별조사보고서 1996」, 1997. 에 기초하여 남기곤이 재구성한 것이다. 자료의 생산 시점이 오래 전이라는 아쉬움이 있으나 대전지역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성과 관련하여 확보가 쉽지 않은 '이직률'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지역 노동자 이직률 산출 과정에서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 한편, 대전의 고용구조 유형은 ‘고(高)실업·저(低)비용 고용구조’ 임

-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가 2013년에 발표한 ‘대전지역 고용의 특징 및 시사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03~2012년) 16개 시·군의 연평균 실업률과 고용률을 전국 평균 값과 비교하여 각 지역의 고용구조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결과, 대전은 제조업 비중이 낮고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고(高)실업·저(低)비용 고용구조’에 해당함. [그림 2-1]은 이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임(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2013)
- 대전과 가장 흡사한 고용구조를 보이고 있는 지역은 대구광역시이며, 광주광역시와 부산광역시는 대전과 유사한 고용구조를 나타내고 있음



<그림 2-1> 전국 주요 시·군별 고용구조 비교(2003~2012년)

자료: 한국은행대전충남본부, 2013. 1., “대전지역 고용의 특징 및 시사점.” pp. 9. 에서 재인용. 10)

10) 이 자료의 원 출처는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2012, “대구경북지역의 고용구조 변화와 시사점.” 이다.

## 2) 노동조건 논의

- 노동조건과 관련한 주요 지표로는 임금, 노동시간, 직장만족도, 노사관계 등을 들 수 있음
  - 대전지역의 노동조건과 관련한 논의들은 ‘대전경제 주요지표(과학경제국, 2016)’, 남기곤(1998)의 연구논문, 대전시 산하 5개 구청의 <통계연보> 등을 통해 검토함
  - 검토 내용을 토대로 대전지역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통계의 특징을 요약하고 그 의미를 평가하고자 함
  
- 대전지역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은 2014년 현재 특별시 및 광역시와 비교해 3위, 전국 16개 시군과 비교해 4위의 수준임
  - 1인당 월급여액(5인 이상 사업장, 사용자로자 기준)으로 볼 때 2014년 현재 2,805천원으로, 전국 평균치 2,838천원보다 월평균 38천원이 적은 상태임
  - 이러한 임금수준은 2012년 2,646천원, 2013년 2,723천원 등과 비교하여 볼 때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임(과학경제국, 2016)
  - <표 2-7>는 2012년 이후 3개년 간의 1인당 월급여액과 지역 총소득, 1인당 개인소득을 요약한 자료임

**<표 2-7> 대전지역 노동자 임금 추이(2012~2014년)**

(단위: 천원/조원)

분류	2012년	2013년	2014년
1인당 월급여액 (5인 이상 사업장/상용)	2,643	2,723	2,805
1인당 개인소득	15,282	15,763	16,495
지역총소득(단위: 조원)	34.8	35.7	37.6

자료: 과학경제국, 2016. 7. 1., “대전경제 주요지표.”, 대전광역시.

○ 한편, 1997년 기준으로 대전지역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월급여 총액) 자료는 남기곤(1998: 17-19)의 자료에서 상세히 분석, 제시하고 있음. 이는 아래의 <표 2-8>에서 제시함

- 노동부의 자료를 이용하여 정리한 이 자료에 따르면 대전지역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광역시 평균 및 시도 평균치보다 대략 10만원 정도 높음
- 이를 성별로 보게 되면, 남자의 경우가 여자보다 임금수준이 더 낮음
- 사업장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대기업 종사자가, 산업별로는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종사자가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상태임

**<표 2-8> 대전 등 지역별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 비교(1997년)**

단위: 원.

	대전	충남	충북	전체	광역시	도 (광역시 제외)
<전체 평균>	1,298,865	1,273,106	1,190,803	1,318,664	1,376,195	1,289,361
<성별>						
남 자	1,444,365	1,455,976	1,374,511	1,483,489	1,564,302	1,456,597
여 자	888,020	846,755	824,192	894,015	929,821	872,628
<규모별>						
10 - 29인	1,073,659	1,254,938	1,083,197	1,096,240	1,145,037	1,095,890
30 - 99인	1,074,114	1,126,832	1,021,195	1,129,612	1,249,146	1,127,286
100 - 299인	1,232,254	1,336,962	1,202,438	1,306,398	1,361,429	1,293,233
300 - 499인	1,792,671	1,453,070	1,446,906	1,507,644	1,550,491	1,426,753
500인 이상	1,752,586	1,442,413	1,456,410	1,708,333	1,752,067	1,670,893
<산업별>						
광업	881,290	1,563,288	1,042,981	1,238,401	1,374,426	1,252,270
제조업	1,115,130	1,147,694	1,156,901	1,256,665	1,238,159	1,255,457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	1,380,586	1,464,903	1,254,504	1,380,366	1,463,429	1,346,818

자료: 남기곤. 1998. "대전·충청지역 노동시장 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pp. 18. 에서 재인용.

- 대전지역 노동자의 근무시간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직장만족도는 ‘보통(5점 중 3.0)’ 으로,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의 상태임. 이는 아래의 <표 2-9>에 제시함
- 대우경제연구소의 ‘한국가구패널조사지표’ (1995)를 이용하여 정리한 이 자료에 따르면 대전지역 근로자의 근무시간 만족도는 2.89로 보통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수준임
- 그러나 충남, 충북, 전국 평균 만족도와 비교할 경우 근무시간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임

**<표 2-9> 대전 등 지역별 근무시간.직장만족도 비교(1995년)**

	대전	충남	충북	전 체	광역시	도 (광역시 제외)
전반적 만족도	3.09(0.94)	3.18(0.80)	3.15(0.94)	3.10(0.89)	3.11(0.90)	3.09(0.88)
수입	2.70(1.11)	2.84(0.95)	2.87(0.90)	2.66(0.98)	2.65(1.02)	2.67(0.93)
안정성	3.18(1.17)	3.12(0.99)	3.44(1.00)	3.16(1.06)	3.18(1.07)	3.13(1.04)
근무시간	2.89(1.28)	3.10(1.00)	3.17(1.09)	2.93(1.07)	2.89(1.08)	2.97(1.05)
업무내용	3.10(1.04)	3.18(0.86)	3.28(0.92)	3.10(0.95)	3.11(0.95)	3.09(0.95)
근무환경	3.00(1.17)	3.20(0.95)	3.25(0.97)	3.02(1.00)	3.02(1.00)	3.03(1.01)
장래성	2.67(1.08)	2.89(0.87)	3.08(1.13)	2.97(1.10)	2.99(1.11)	2.94(1.09)
이직성향(%)	25.4	12.0	11.5	17.2	17.5	16.7
표 본 수	55	58	78	1,888	1,084	804

자료: 남기근. 1998. “대전·충청지역 노동시장 구조에 관한 연구.”한국노동연구원. pp. 23. 에서 재인용.<sup>11)</sup>

- 대전지역 노동자들의 노사관계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노동조합 가입자 수는 대전시 산하 5개 구청의 <통계연보>에 실린 노동조합 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대전광역시 각 구청, 2016)
- 대전지역 노동자들의 각 구별 노동조합 가입 현황은 <표 2-10>로 정리하였음
- 이 표에 따르면 대전지역 노동자들 중 노동조합 가입자 수는 대덕구, 유성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상태임

11) 이 자료의 원 출처는 대우경제연구소. 1995. “한국가구패널조사자료.”이다.

〈표 2-10〉 대전지역 노동조합 가입 현황(2012~2014년)

단위: 명, 개.

분류		2012년	2013년	2014년
동구	조합 수	12	13	17
	조합원 수	1,086	1,129	1,158
중구	조합 수	13	15	18
	조합원 수	2,281	2,360	2,421
서구	조합 수	19	26	30
	조합원 수	3,010	3,800	3,185
대덕구	조합 수	41	43	41
	조합원 수	2,941	3,119	3,132
유성구	조합 수	37	30	·
	조합원 수	11,686	2,889	·

자료: 대전시 5개 구청, 2016., <통계연보>, 대전시 5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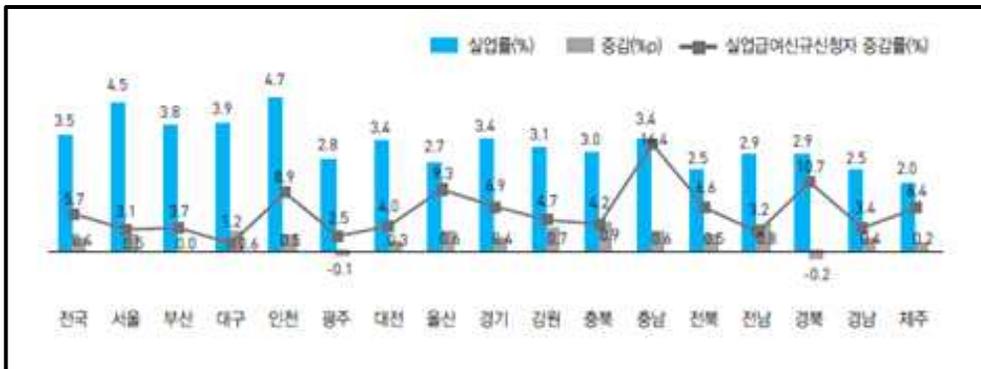
### 3) 고용복지 논의

- 고용복지를 드러내주는 주요 지표로는 사회보장(고용보험, 실업급여, 퇴직급여), 산업재해 보상 등을 살펴볼 수 있음
  - 여기에서는 대전지역의 노동자들의 고용복지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김하경 외(2016)의 ‘16개 시도별 고용동향’에서 다룬 피보험자 현황과 한국고용정보원(2015)의 ‘행정통계포커스’에 나타난 실업급여 신규신청자 데이터를 검토함
  - 검토 내용을 토대로 대전지역 노동자들의 고용복지 통계의 특징과 의미를 평가하고자 함
  
- 대전의 피보험자 현황은 2015년 현재 전년 대비 4.6%(15천명)가 증가하여 전국 평균 증가율(3.6%)를 상회하고 있음
  - 김하경 외(2016: 43-44)의 ‘16개 시도별 고용동향’에 따르면, 대전의 피보험자 수는 337천 명으로 전국 대비 2.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 대비 비중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피보험자 비중을 기준으로 할 때, 대전의 주력산업은 제조업(15.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2.9%),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12.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10.4%),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0.0%)로 나타나고 있음
- 제조업 부문에서는 가전(21.8%), 기계(17.0%), 자동차(9.3%) 업종의 비중이 강세를 보임
- 각 구별로는 유성구(26.3%), 서구(25.4%), 대덕구(18.2%) 순으로 나타나 일자리를 중심으로 피보험자 비중이 높게 형성되어 있음

○ 대전의 2014년 현재 실업급여 신규신청자 수(연평균 수치) 및 비율은 전체적으로 양호한 상태임

- 한국고용정보원(2015)의 ‘행정통계포커스’에 나타난 대전의 2014년의 실업급여 신규신청자 증감률은 0.3%를 달성하고 있음. 이는 제주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임
- 실업급여 신청자 비율은 실업률 증가에 따라 2013년도에 비해 4.0%p가 높아졌으나 다른 광역시 및 시군지역과 비교해 상당히 양호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아래의 [그림 2-2]는 대전을 포함한 주요 지역별 실업률 및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증감률을 나타낸 것임



[그림 2-2] 대전 및 주요 시·군별 실업률 및 실업급여 신규신청자 증감률

주: 실업급여수급신청자는 연 평균 수치임. 세종시 제외.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15., “2014년 지역고용동향”. <행정통계포커스> 2015년 1월호. pp. 143. 에서 재인용. 12)

12) 이 자료의 원 출처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와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DB’의 각 년도 자료이다.

#### 4) 고용평등 논의

- 고용평등과 관련한 지표로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층에 대한 지표를 우선 언급할 수 있음. 즉 여성, 노인, 장애인 등과 남성, 청년 및 중장년, 비(非)장애인 사이에 나타나는 격차 문제의 논의에 해당함. 또 비정규직의 문제는 고용평등 지표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의 문제가 되고 있음
- 대전지역 노동자들의 고용평등 문제를 논의한 기존 자료로, 대전광역시의 ‘대전의 최근 경제활동모습-생산, 분배, 소비, 고용부문 분석-’ (2015)과 유병주·남기섭의 ‘대전지역 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실태에 관한 실증적 연구’ (2004)가 있음. 또,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가 발표한 ‘대전지역 고용의 특징 및 시사점’ (2013)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 자료를 중심으로 대전지역 고용평등의 기존 논의를 검토함
- 검토 내용을 토대로 대전지역 노동자들의 고용평등 통계의 특징과 의미를 평가하고자 함
- 대전지역의 2002년 이후 지난 10년 간 연령별 취업자 수는 5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증가한 반면, 20-30대의 취업자는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이는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의 자료(2013)에 제시되어 있음
- 이 기간 동안 연령별 취업자 수는 50대 이상에서 90% 가까이 증가한 반면, 20-30대의 젊은 층 취업자 수는 오히려 14.0%가 감소하는 역전현상을 보이고 있음
- 이러한 현황은 아래의 <표 2-11>에 요약되어 있음

**<표 2-11> 대전지역 연령별 취업자 수 추이(2002~2012년)**

단위: 천명

구분	2002	2005	2008	2009	2010	2011	2012
15~29세	154	137	130	124	123	120	120
30~39세	190	190	195	190	185	183	176
40~49세	178	188	199	199	198	198	204
50~59세	83	91	122	130	139	150	157
60세 이상	37	40	50	55	57	62	68
계	642	646	696	698	702	713	725

자료: 한국은행대전충남본부, 2013. ‘대전지역 고용의 특징 및 시사점’, pp. 4쪽에서 재인용.<sup>13)</sup>

13) 이 자료의 원 출처는 통계청이다.

- 대전지역의 2002년 이후 지난 10년 간 성별 취업자 수는 모두 대체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여성 취업자의 비중이 최근 늘어나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음
-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의 자료(2013)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성별 취업자 수는 남성의 비중은 60% 수준에 육박하고 있으며 여성의 비중은 40%대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임
- 이러한 현황은 아래의 <표 2-12>에서 확인할 수 있음

**<표 2-12> 대전지역 성별 취업자 수 추이(2002~2012년)**

단위: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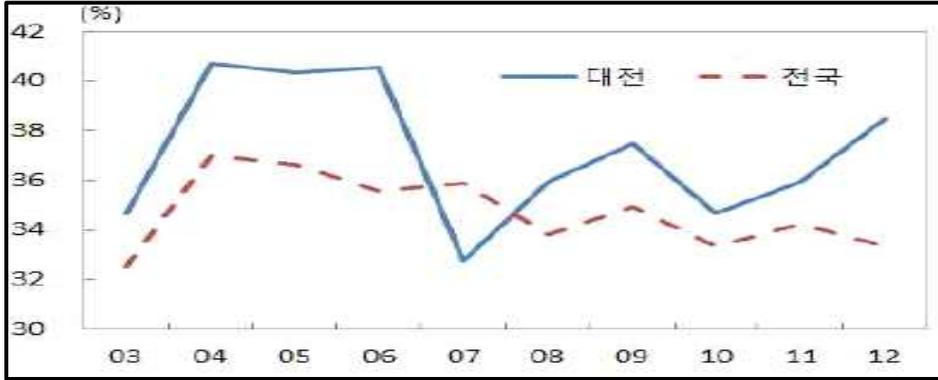
구분		2002	2005	2008	2009	2010	2011	2012
대전	남성	371 (57.8)	383 (59.3)	411 (59.1)	412 (59.0)	418 (59.5)	422 (59.2)	426 (58.7)
	여성	272 (42.2)	263 (40.7)	285 (40.9)	286 (41.0)	284 (40.5)	291 (40.8)	299 (41.3)
전국	남성	12,944 (58.4)	13,330 (58.5)	13,703 (58.1)	13,734 (58.4)	13,915 (58.4)	14,153 (58.4)	14,397 (58.3)
	여성	9,225 (41.6)	9,526 (41.5)	9,874 (41.9)	9,772 (41.6)	9,914 (41.6)	10,091 (41.6)	10,309 (41.7)

주: ( ) 내의 수치는 전체 취업자에서 해당 성별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

자료: 한국은행대전충남본부, 2013. '대전지역 고용의 특징 및 시사점', pp. 5쪽에서 재인용.<sup>14)</sup>

- 대전지역의 비정규직 고용은 2003년 이후 약간의 등락을 거듭하면서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이러한 추이는 전국적으로 비정규직 비중이 최근 들어 감소하는 추세와 상반된 현상임
-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의 자료(2013)에 나타난 전국 대비 대전의 비정규직 추이는 [그림 2-3]에 잘 나타나 있음

14) 이 자료의 원 출처는 통계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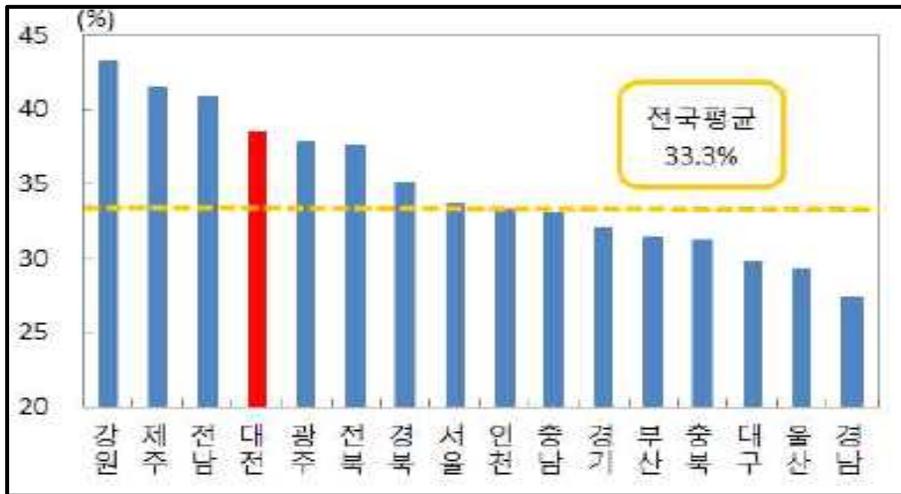


[그림 2-3] 대전 및 전국의 비정규직 비중 추이 비교(2003-2012)

주: 각 년도 8월 기준.

자료: 한국은행대전충남본부, 2013. '대전지역 고용의 특징 및 시사점', pp. 10쪽에서 재인용. 15)

- 또, 2012년 현재 전국 16개 시도와 대전지역의 비정규직 비중을 비교한 막대 그래프는 [그림 2-4]에서 확인할 수 있음



[그림 2-4] 대전 및 전국의 비정규직 비중(2012)

자료: 한국은행대전충남본부, 2013. '대전지역 고용의 특징 및 시사점', pp. 10쪽에서 재인용. 16)

- 15) 이 자료의 원 출처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와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DB'의 각 년도 자료이다.
- 16) 이 자료의 원 출처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와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DB'의 각 년도 자료이다.

- 대전지역의 2012년 현재 기준으로 비정규직 고용 비중을 업종별로 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종에서의 비정규직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업종별 비정규직 비중 현황의 경우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의 자료(2013)에 나타난 전국 대비 대전의 비정규직 추이를 보면, 대전지역은 사업.개인. 공공서비스업종에서의 비정규직 비중이 40.4%로 절대적인 상태이며 도소매. 음식. 숙박업에서 33.7%, 전기. 운수. 통신. 금융에서 27.4%를 보이고 있음
  
- 한편, 과학기술 연구소가 밀집되어 있는 대전지역의 경우는 연구기관의 비정규직 비중이 높아, 대전지역 전체의 비정규직 비율을 상승시키고 있음
  - 대전소재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비정규직 비중은 2012년 8월 현재 42.8%로, 지역 내 전체 비정규직 비중 38.5%를 크게 웃돌고 있음
  - 특히, 비정규직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도 전체 17개 조사 기관 중 1/3이상에 이룸. <표 2-13>은 대전지역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비정규직 비중을 요약한 것임

〈표 2-13〉 대전소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비정규직 비중(2012년)

단위: 명, %.

기관명	정규직(A)	비정규직(B)	계 (C=A+B)	비정규직 비중(B/C)
과학기술정보연구원	337	287	624	46.0
국가보안기술연구소	274	84	358	23.5
국가수리과학연구소	16	69	85	81.2
기계연구원	314	291	605	48.1
기초과학지원연구원	209	378	587	64.4
생명공학연구원	331	795	1,126	70.6
안정성평가연구소	166	159	325	48.9
에너지기술연구원	378	291	669	43.5
원자력연구원	1228	753	1,981	38.0
전자통신연구원	1900	810	2,710	29.9
지질자원연구원	430	171	601	28.5
천문연구원	145	159	304	52.3
표준과학연구원	390	289	679	42.6
한의학연구원	128	200	328	61.0
항공우주연구원	718	323	1,041	31.0
핵융합연구소	196	177	373	47.5
화학연구원	350	393	743	52.9
계	7,510	5,629	13,139	42.8

자료: 한국은행대전충남본부, 2013. '대전지역 고용의 특징 및 시사점', pp. 13쪽에서 재인용.<sup>17)</sup>

- 이와 함께 현재 연구 자료가 거의 없는 베이비부머의 대량 은퇴, 세계화에 따른 외국인노동자의 증가 등으로 최근에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자영업, 외국인 노동과 관련한 고용평등 논의는 추후의 중요한 연구 과제가 되고 있음

17) 이 자료의 원 출처는 이상민. 2012. '과학기술계 정부출연 연구기관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이다.



## 제 3 장

---

### 대전지역 노동시장 주요 고용지표 분석

---

제 1절 대전의 지역경제

제 2절 대전지역 고용 현황

제 3절 임금 및 근로시간

제 4절 기타 고용여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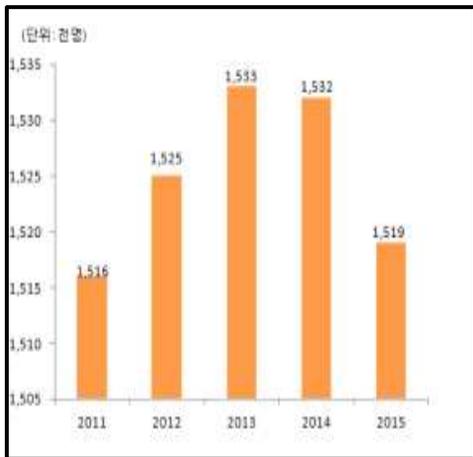
# 제 3 장 대전지역 노동시장 주요 고용지표 분석

## 제 1절 대전의 지역경제

### 1. 대전의 인구구조

#### 1) 인구 동향

- 인구는 노동공급의 가장 기본적인 원천이므로 인구의 규모, 그 구성(성별, 연령별), 인구 변화, 인구의 지역내 유출입(인구 이동) 등은 지역 고용여건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임
- 2015년 12월 기준으로 대전 인구는 1,519천명으로 전국 인구의 2.9% 차지
- 2015년 대전의 인구는 전년대비 0.9% 감소하였으며, 60세 이상(5.9%) 인구는 증가한 반면, 20세미만(-4.3%), 30대(-3.8%), 40대(-1.7%)는 감소
- 연령별 인구비중은 40대 이하가 68.2%로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젊은 도시라고 할 수 있음



[그림 3-1] 인구 추이

자료: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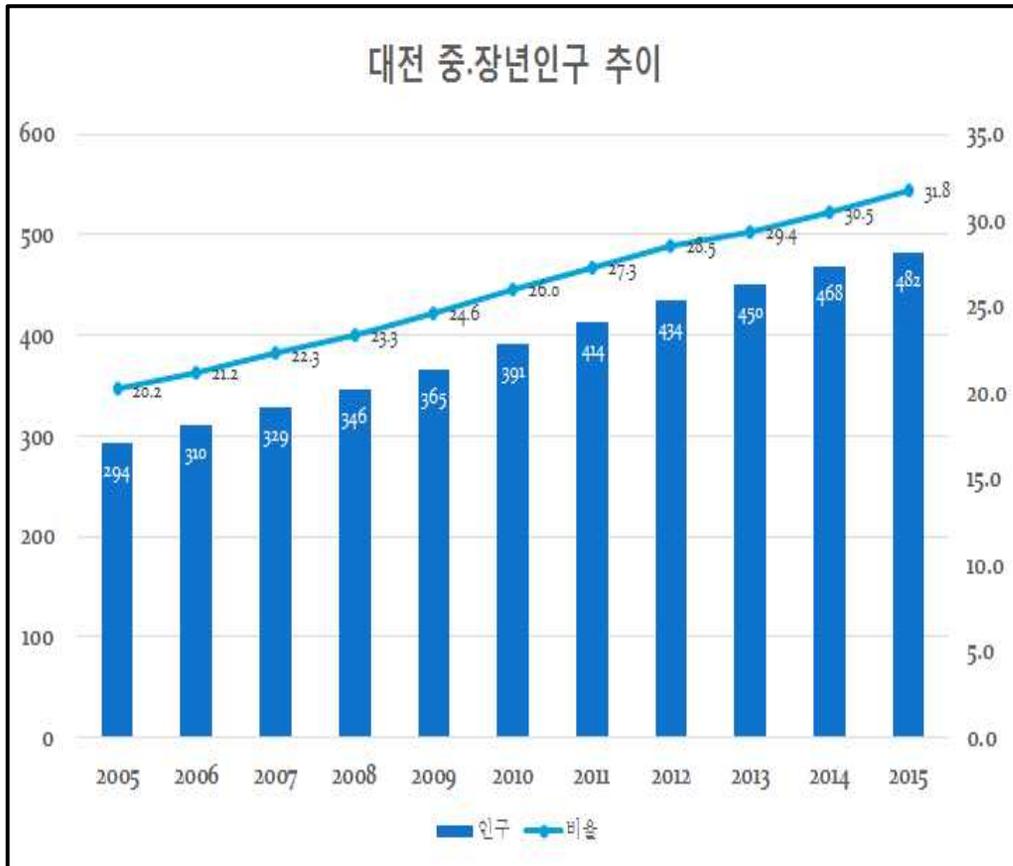


[그림 3-2] 연령별 인구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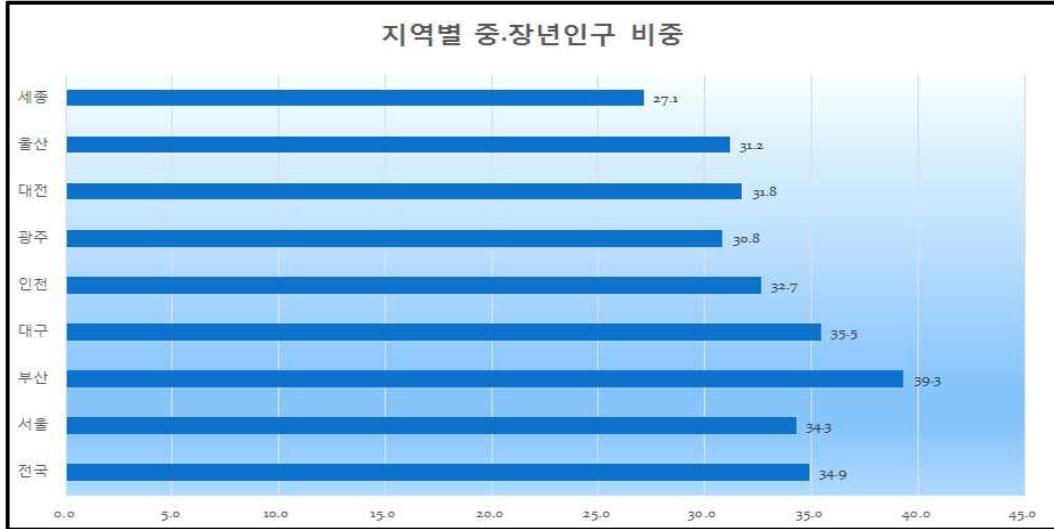
자료: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현황

2) 중장년인구(고령자 및 준고령자: 50세 이상)의 현황 및 추이

- 2015년 기준으로 대전의 중장년인구(50세 이상 준고령자 및 55세 이상 고령자)는 482천명(31.8%)
-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 20.2%에서 2015년 31.8%로 증가하였음
- 중장년층은 생애주기 상 소득의 필요성은 매우 큰 시기(자녀 교육, 자녀 결혼 등)인 반면 고용 불안과 소득 감소가 집중되는 세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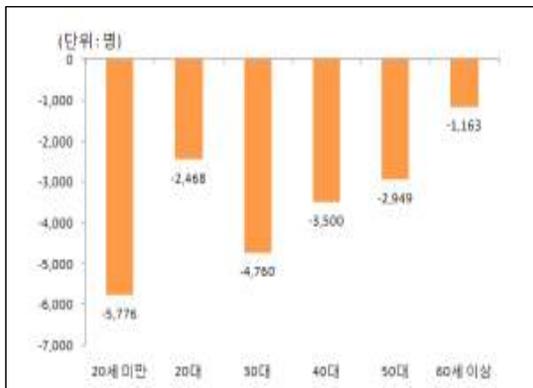
[그림 3-3] 대전 중장년 인구의 추이



[그림 3-4] 지역별 중장년인구 비중

### 3) 인구이동

- 2015년에는 전출자가 전입자보다 20,616명 많음. 순 이동률은 -1.4%로 17개 시도중 가장 낮게 나타남
- 연령별로 보면 20세 미만(-5,776명), 30대(-4,760명)순으로 순유출이 크고, 시도간으로 보면 세종(-22,104명)으로의 순유출이 가장 크게 나타남



[그림 3-5] 순이동자수(전입-전출) 추이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표 3-1> 시도별 순이동자수 (단위: 명)

시도	순이동자수	시도	순이동자수
서울	-106	경기	-88
부산	155	강원	479
대구	418	충북	-516
인천	240	충남	-479
광주	160	전북	630
울산	-49	전남	221
<b>세종</b>	<b>-22,104</b>	경북	594
제주	-364	경남	193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표 3-2〉 지역별 인구 현황 (2005 ~ 2015년)

(단위 : 명, %)

구분	연도	총인구		남성			여성		
		인구수	전년대비 증감률	인구수	비율	전년대비 증감률	인구수	비율	전년대비 증감률
대전	2005	1,454,638	0.8	729,818	50.2	0.7	724,820	49.8	0.8
	2006	1,466,158	0.8	735,595	50.2	0.8	730,563	49.8	0.8
	2007	1,475,659	0.6	739,472	50.1	0.5	736,187	49.9	0.8
	2008	1,480,895	0.4	741,611	50.1	0.3	739,284	49.9	0.4
	2009	1,484,180	0.2	743,121	50.1	0.2	741,059	49.9	0.2
	2010	1,503,664	1.3	753,648	50.1	1.4	750,016	49.9	1.2
	2011	1,515,603	0.8	759,188	50.1	0.7	756,415	49.9	0.9
	2012	1,524,583	0.6	763,671	50.1	0.6	760,912	49.9	0.6
	2013	1,532,811	0.5	767,309	50.1	0.5	765,502	49.9	0.6
	2014	1,531,809	-0.1	766,497	50.0	-0.1	765,312	50.0	0.0
2015	1,518,775	-0.9	759,778	50.0	-0.9	758,997	50.0	-0.8	
광역시	2005	22,861,469	0.0	11,429,313	50.0	-0.1	11,432,156	50.0	0.1
	2006	22,880,114	0.1	11,431,141	50.0	0.0	11,448,973	50.0	0.1
	2007	22,927,084	0.2	11,447,229	49.9	0.1	11,479,855	50.1	0.3
	2008	22,966,828	0.2	11,458,552	49.9	0.1	11,508,276	50.1	0.2
	2009	22,984,378	0.1	11,456,977	49.8	0.0	11,527,401	50.2	0.2
	2010	23,235,025	1.1	11,584,529	49.9	1.1	11,650,496	50.1	1.1
	2011	23,223,748	0.0	11,567,923	49.8	-0.1	11,655,825	50.2	0.0
	2012	23,224,482	0.0	11,559,229	49.8	-0.1	11,665,253	50.2	0.1
	2013	23,214,851	0.0	11,542,619	49.7	-0.1	11,672,232	50.3	0.1
	2014	23,192,576	-0.1	11,519,118	49.7	-0.2	11,673,458	50.3	0.0
2015	23,114,110	-0.3	11,468,002	49.6	-0.4	11,646,108	50.4	-0.2	
전국	2005	48,782,274	0.4	24,456,234	50.1	0.4	24,326,040	49.9	0.4
	2006	48,991,779	0.4	24,557,004	50.1	0.4	24,434,775	49.9	0.4
	2007	49,268,928	0.6	24,691,249	50.1	0.5	24,577,679	49.9	0.6
	2008	49,540,367	0.6	24,822,897	50.1	0.5	24,717,470	49.9	0.6
	2009	49,773,145	0.5	24,929,939	50.1	0.4	24,843,206	49.9	0.5
	2010	50,515,666	1.5	25,310,385	50.1	1.5	25,205,281	49.9	1.5
	2011	50,734,284	0.4	25,406,934	50.1	0.4	25,327,350	49.9	0.5
	2012	50,948,272	0.4	25,504,060	50.1	0.4	25,444,212	49.9	0.5
	2013	51,141,463	0.4	25,588,336	50.0	0.3	25,553,127	50.0	0.4
	2014	51,327,916	0.4	25,669,296	50.0	0.3	25,658,620	50.0	0.4
2015	51,529,338	0.4	25,758,186	50.0	0.3	25,771,152	50.0	0.4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 2. 대전의 지역내 총생산(GRDP)

### 1) 지역내 총생산

- 지역의 고용여건, 그 중에서도 노동의 수요 측면은 지역의 경제활동(GRDP) 및 경제성장률과 직접적 관계를 가질 수 밖에 없음
- 대전의 명목 지역내총생산(2014년)은 32조 7천억원으로 전국의 2.2%를 차지하며 제주(0.9%), 광주(2.1%) 다음으로 낮게 나타남
- 대전의 실질 지역내총생산(2010년도 기준)은 30조 3천억원으로 전년대비 3.1% 성장
- 2005년~2014년 기간 중 대전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지역내총생산 증가율)은 2.7%로 전국 평균 3.6%에 못 미치고 있음. 결과적으로 대전경제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2.29%에서 2013년 2.13%로 축소되었음
- 대전 지역경제의 성장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정체된 것은 과거 지역경제의 성장을 견인했던 외생적 계기들(대덕연구단지 개발, 대전엑스포개최, 정부 대전청사 건립 등)을 내생적 성장동력화하는데 실패하고 서비스산업 위주의 취약한 산업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 전통적으로 대전 경제의 경쟁력의 원천으로 간주되어 왔던 교통중심지 기능도 교통의 발달과 시장의 광역화, 전자상거래의 발달에 따라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으로서의 기능이 위축되었음. 이에 따라 전통적인 유통 소비 도시였던 대전의 지역경제는 정체를 피할 수 없었음

**<표 3-3> 지역별 지역내총생산 및 연평균 증가율 (2005 ~ 2014년)**

(단위 : 백만원, %)

연도	대전	충남	광역시	전국
2005	23,848,310 (2.1)	60,617,729 (10.5)	497,467,932 (3.6)	1,040,722,786 (4.4)
2006	24,437,561 (2.5)	65,465,173 (8.0)	513,808,485 (3.3)	1,091,879,984 (4.9)
2007	25,134,763 (2.9)	69,417,714 (6.0)	541,029,020 (5.3)	1,151,843,196 (5.5)

연도	대전	충남	광역시	전국
2008	25,364,972 (0.9)	72,825,553 (4.9)	545,798,288 (0.9)	1,179,446,782 (2.4)
2009	25,929,114 (2.2)	74,400,993 (2.2)	543,619,990 (-0.4)	1,187,344,240 (0.7)
2010	27,631,678 (6.6)	83,166,818 (11.8)	569,628,771 (4.8)	1,265,146,117 (6.6)
2011	28,720,537 (3.9)	88,815,200 (6.8)	588,184,434 (3.3)	1,308,881,621 (3.5)
2012	29,057,519 (1.2)	91,988,780 (3.6)	599,488,657 (1.9)	1,338,985,832 (2.3)
2013	29,425,974 (1.3)	98,002,393 (6.5)	608,986,006 (1.6)	1,376,143,497 (2.8)
2014 <sup>p</sup>	30,336,271 (3.1)	102,835,820 (4.9)	624,896,831 (2.6)	1,422,002,860 (3.3)
연평균 증가율	2.7%	6.0%	2.6%	3.5%

주 : 2014년 지역내총생산은 잠정치이고, 괄호( )는 전년대비 증가율임.

자료 : 통계청, 시도별 지역내총생산,

- 대전의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2014년 기준으로 서비스업의 비중이 83.4%, 제조업의 비중이 17.6%로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제조업 비중은 전국 평균(30.3%)에 비해서는 12.7%p, 타 광역시 평균(18.7%)에 비해서는 1.1%p 낮은 것임

**<표 3-4> 경제활동별 지역내 총생산 구성비 (2014년)**

구분		대전	충남	광역시	전국
지역내총생산	백만원	32,722,635	103,739,990	649,581,152	1,484,541,954
농림어업	비중(%)	0.1	4.9	0.3	2.3
광업	비중(%)	0.0	0.2	0.1	0.2
<b>제조업</b>	<b>비중(%)</b>	<b>17.6</b>	<b>52.4</b>	<b>18.7</b>	<b>30.3</b>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비중(%)	1.2	4.7	1.9	2.2
건설업	비중(%)	3.8	6.7	3.9	5.0
도매 및 소매업	비중(%)	8.5	2.9	13.1	8.7
운수업	비중(%)	3.4	2.4	4.5	3.7

구분		대전	충남	광역시	전국
숙박 및 음식점업	비중(%)	3.2	1.5	3.0	2.6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비중(%)	2.6	0.6	6.1	3.9
금융및보험업	비중(%)	5.6	2.1	8.4	5.6
부동산업및임대업	비중(%)	9.7	3.7	10.1	8.0
사업서비스업	비중(%)	14.6	2.9	9.7	7.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비중(%)	11.1	6.5	6.3	7.2
교육서비스업	비중(%)	8.4	4.2	5.7	5.4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비중(%)	6.2	2.3	4.9	4.2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비중(%)	3.9	1.8	3.4	3.2

자료 : 통계청, 시도별 지역내 총생산

<표 3-5> 대전 지역내총생산 상위 10개 산업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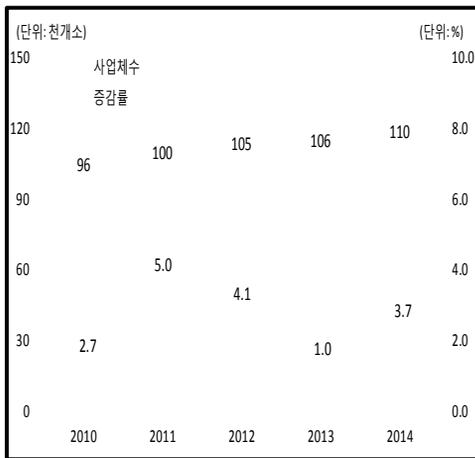
산업	지역내총생산 (천억원)	구성비(%)	전년대비 증감률(%)
제조업	48	15.7	3.2
사업서비스업	40	13.3	5.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30	10.0	8.0
도매 및 소매업	27	8.8	1.4
부동산업 및 임대업	26	8.6	2.0
교육서비스업	23	7.5	-0.2
금융 및 보험업	18	6.1	6.0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8	6.0	6.7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11	3.5	1.4
건설업	10	3.2	-13.6

자료 : 통계청, 지역소득

### 3. 대전의 사업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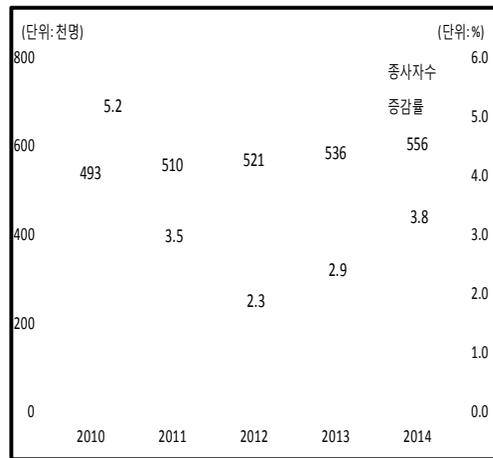
#### 1) 사업체수

- 대전의 사업체는 2014년 기준으로 109,535개소(전국의 2.9%), 종사자 수는 55만 6천명(전국 2.8%)
- 사업체수는 전년 대비 3.7% 증가(전국 3.7%)하였고, 종사자수는 3.8% 증가함(전국 2.8%)



[그림 3-6] 대전 사업체수 추이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그림 3-7] 대전 종사자수 추이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 2)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현황

-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를 규모별로 일자리 창출의 시각에서 살펴보면 최근 대전 지역에서 어느 정도 규모의 사업체들이 일자리창출에 많은 기여를 해왔는지 알 수 있음. 최근 수년간 종사자수 50~299인 규모의 중기업에서 일자리 창출이 크게 증가하여 왔음을 잘 알 수 있음. 5~49인 규모의 소기업도 전체 평균보다 빠른 속도로 일자리를 증가시켜 왔음

- 영세기업(1~4명) 사업체의 비중이 82.8%로 압도적이며 그 숫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는 영세기업들의 창업이 여전히 활발하다는 증거임. 상대적으로 대기업의 숫자와 비중은 정체되어 있음

**<표 3-6> 대전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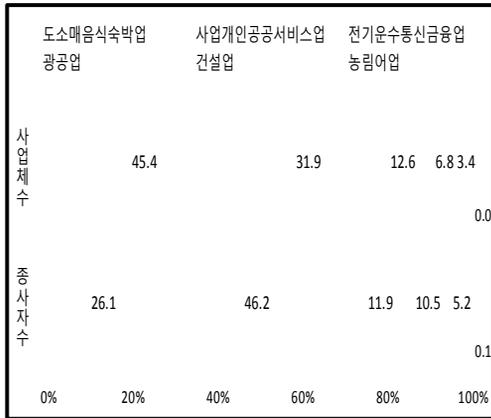
(단위 : 개, %)

규모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 계		93,176	95,650	100,474	104,609	105,676	109,53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영세	1~4명	78,230	81,058	84,719	87,477	87,604	90,737
		84.0	84.7	84.3	83.6	82.9	82.8
소	5~49명	13,800	13,372	14,498	15,873	16,756	17,436
		14.8	14.0	14.4	15.2	15.9	15.9
중	50~299명	1,031	1,107	1,142	1,148	1,197	1,247
		1.1	1.2	1.1	1.1	1.1	1.1
대	300이상	115	113	115	111	119	115
		0.1	0.1	0.1	0.1	0.1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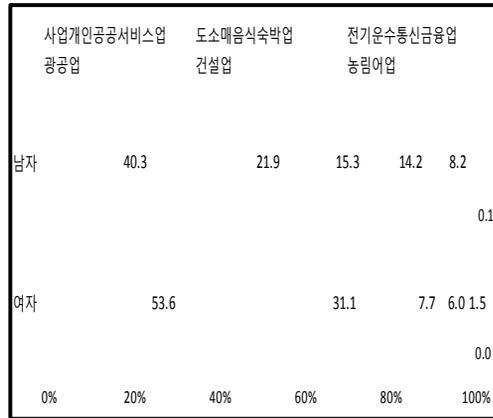
※ KOSIS 주제별 통계→행정→시도·시군구→00광역시도→시도·산업·종사자규모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 3) 산업별 사업체 현황

- 대전의 산업별 사업체 비중은 도소매·음식숙박업(45.4%),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31.9%) 순으로 높고, 종사자 비중은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46.2%), 도소매·음식숙박업(26.1%) 순으로 나타남. 여성 종사자는 전체의 44.8%를 차지하고 이중에서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에 53.6%가 종사함
- 제조업 사업체는 전체의 6.7%에 불과하며 지식기반경제의 기초가 되는 서비스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도 2.4%로 낮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음
- 결국 대전의 주요 사업체는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개인 서비스업, 운수업 등 주로 전통적인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종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산업별 종사자수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종사자가 46.2%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도소매·음식숙박업 종사자가 15.5%, 제조업 종사자는 10.5%를 점하고 있음



[그림 3-8] 산업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비중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그림 3-9] 산업별/성별 종사자수 비중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 4) 고용집중 산업 현황

- 상대고용집중도: 특정산업의 지역 간 특화정도와 해당산업의 지역 내 비중을 동시에 보여주는 상대집중지수 (오민홍 외, 2015)

\* 상대고용집중도

$$C_{ij} = \frac{N_{ij} - E_{ij}}{N_{ij}} \cdot \frac{N_{ij}}{N_i} \times 100$$

여기서  $i$ 는 지역,  $j$ 는 산업,  $E_{ij} = Np_i p_j$ ,  $p_i = N_i/N$ ,  $p_j = N_j/N$

- 상대고용집중도가 '0' 보다 크면 지역 내에서 해당산업은 상대적으로 집중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상대고용집중도로 살펴 본 대전의 고용집중산업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임

<표 3-7> 대전 고용집중산업 현황(2014)

산 업	사업체수 (개소)	종사자수 (명)	상대 고용집중도	순위
농업, 임업 및 어업 (01 ~ 03)	8	317	-0.1263	13
광업 (05 ~ 08)	4	28	-0.0769	12
제조업 (10 ~ 33)	7,438	58,590	-9.3545	19

산 업	사업체수 (개소)	종사자수 (명)	상대 고용집중도	순위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35 ~ 36)	31	2,652	0.1220	11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37 ~ 39)	132	1,564	-0.1320	14
건설업 (41 ~ 42)	3,694	28,928	-0.3203	17
도매 및 소매업 (45~47)	30,036	86,328	0.4482	7
운수업 (49~52)	11,278	28,271	-0.1833	16
숙박 및 음식점업 (55 ~ 56)	19,647	58,677	0.1377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58 ~ 63)	1,116	12,976	-0.3474	18
금융 및 보험업 (64 ~ 66)	1,367	22,313	0.5008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68 ~ 69)	3,988	14,912	0.1944	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0 ~ 73)	2,785	38,668	2.2793	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74 ~ 75)	1,644	39,295	2.1551	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84)	251	23,149	0.9020	5
교육 서비스업(85)	5,486	53,250	1.9890	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4,625	48,102	1.5440	4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3,401	9,373	-0.1541	1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96)	12,604	28,904	0.4222	8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통계에서 계산

## 제 2절 대전지역 고용 현황

### 1. 경제활동인구 개관

〈표 3-8〉 대전지역의 경제활동인구 상태 추이 (2005 ~ 2015년)

(단위 :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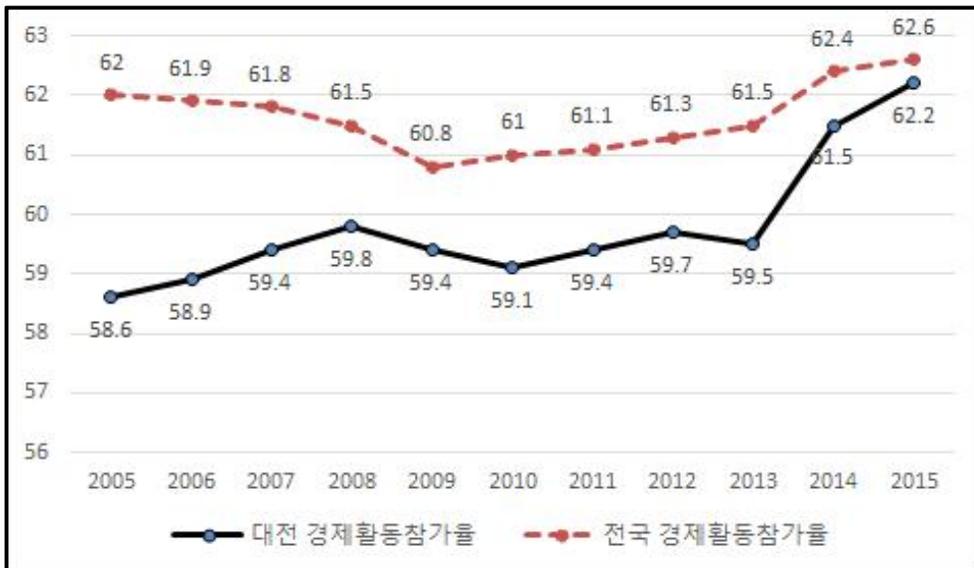
구분	연도	15세이상인구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율
대전	2005	1,154	676	646	30	58.6	4.4	56
	2006	1,174	692	661	31	58.9	4.4	56.3
	2007	1,195	709	680	29	59.4	4.1	56.9
	2008	1,207	722	696	26	59.8	3.6	57.7
	2009	1,219	724	698	26	59.4	3.6	57.3
	2010	1,232	728	702	26	59.1	3.6	57
	2011	1,244	739	713	26	59.4	3.6	57.3
	2012	1,262	753	726	28	59.7	3.7	57.5
	2013	1,276	759	736	23	59.5	3.1	57.7
	2014	1,288	792	765	27	61.5	3.4	59.4
	2015	1,293	805	777	28	62.2	3.5	60.1
전국	2005	38,300	23,743	22,856	887	62.0	3.7	59.7
	2006	38,762	23,978	23,151	827	61.9	3.5	59.7
	2007	39,170	24,216	23,433	783	61.8	3.2	59.8
	2008	39,598	24,347	23,577	769	61.5	3.2	59.5
	2009	40,092	24,394	23,506	889	60.8	3.6	58.6
	2010	40,590	24,748	23,829	920	61.0	3.7	58.7
	2011	41,052	25,099	24,244	855	61.1	3.4	59.1
	2012	41,582	25,501	24,681	820	61.3	3.2	59.4
	2013	42,096	25,873	25,066	807	61.5	3.1	59.5
	2014	42,513	26,536	25,599	937	62.4	3.5	60.2
	2015	43,017	26,913	25,936	976	62.6	3.6	60.3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국가통계포털 > 국내통계 > 주제별통계 > 고용·노동·임금 > 고용 > 경제활동인구조사 > 경제활동인구총괄 > A. 행정구역(시도)별 경제활동인구 및 B. 행정구역(시도)/연령별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인구조사 > 실업자 > C. 행정구역(시도)/연령별 실업자)

주 : 청년실업률은 15 ~ 29세 연령층의 실업률을 의미하며, B와 C자료로 계산함

1) 경제활동인구 및 경제활동참가율

- 2015년 대전의 15세 이상 인구 1,293천명 중 805천명이 경제활동에 참가하여 경제활동참가율은 62.2%로 나타남
- 2000년대 중반 이후 대전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꾸준히 상승하여 전국 평균과의 격차는 상당히 좁혀졌음
- 전년 대비 전국의 경제활동참가율은 0.2%p 상승한 반면, 대전은 여성과 60세 이상 연령층에서 크게 상승하여 전년대비 0.7%p 상승



[그림 3-10]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2) 취업자 및 고용률

- 2015년 대전의 취업자수는 777.2천명으로 전년대비 1.6% 증가하였고, 청년층과 40대 취업자는 감소하였으나 60세이상 취업자가 전년대비 12천명 (16.0%) 증가하여 전국(1.3%)보다 크게 증가하였음



[그림 3-11] 대전 취업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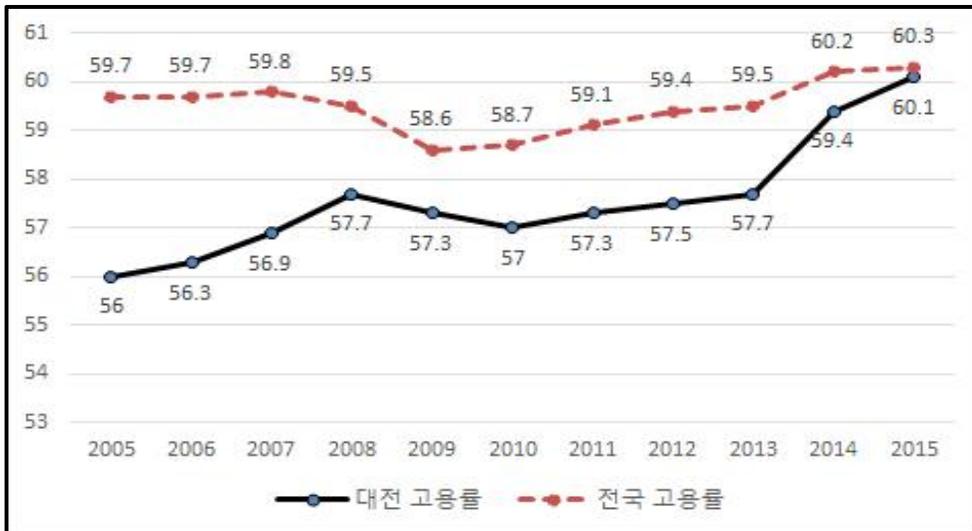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3-12] 대전 연령별 취업자 추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대전의 고용률은 2015년 현재 60.1%로 전국평균(60.3%)에 비해 약간 낮은 수준이나, 2014년 대비 0.7%p 상승
- 2012년 이전 상대적으로 매우 저조했던 고용지표가 최근 취업자수가 증가하고 고용률이 상승하는 등 양적 측면에서 뚜렷한 개선



[그림 3-13] 고용율 추이

### 3) 실업률

#### ○ 실업률 현황 및 추이

- 대전의 실업률은 3.5%로 전년대비 0.1%p 상승하였고, 연령별로는 60세이상에서 전년대비 1.0%p 하락한 반면, 청년층은 1.1%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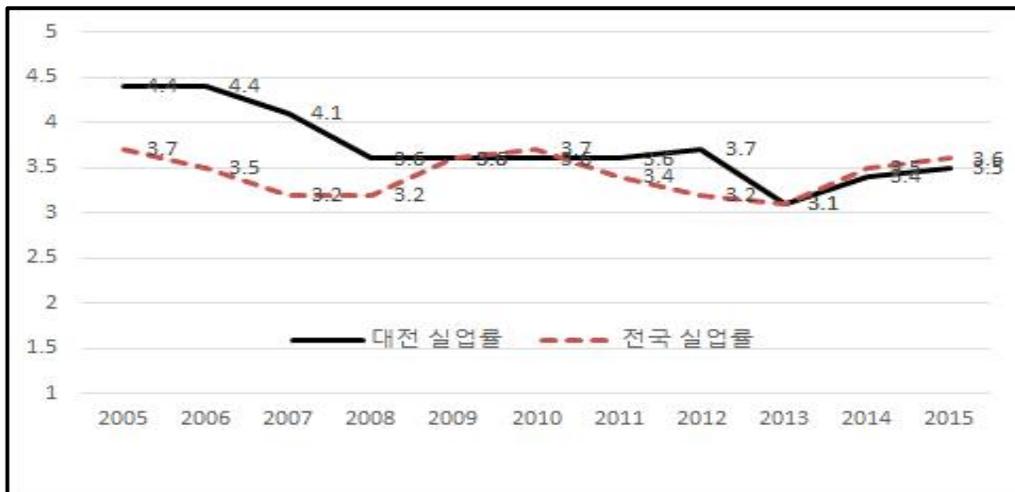
**<표 3-9> 성별/연령별 실업률 현황**

(단위 : %)

구 분		대전		전국	
		2014	2015	2014	2015
계		3.4	3.5	3.5	3.6
성 별	남성	3.6	3.8	3.6	3.7
	여성	3.1	3.0	3.5	3.6
연 령 별	청년층 (15~29세)	7.7	8.8	9.0	9.2
	30~59세	2.2	2.2	2.5	2.6
	60세이상	3.9	2.9	2.3	2.5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012년까지 대전의 실업률은 전국 평균을 상회하였으나 최근 수년간은 전국 평균을 하회하고 있음



[그림 3-14] 실업률 추이

- 이상에서 보듯이 최근 수년간 대전의 고용여건은 양적으로는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음 (취업자의 증가, 고용율의 상승, 실업률의 하락)
- 이러한 성과 개선의 요인이 무엇인지, 이러한 개선이 지속가능한 것인지, 양적 지표의 개선과 함께 노동시장성과의 질적 측면에서의 개선이 동반되고 있는지에 대한 천착이 필요함

○ 실업률과 지역경제성장률(GRDP증가율)간의 관계

- 일반적으로 실업과 경제활동 사이에는 상충관계가 존재함. 즉, 실업률과 경제성장률간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관찰됨(오쿤의 법칙: Okun' s law)
- 대전과 충남의 실업률과 지역경제성장률(GRDP성장률)간에 오쿤의 법칙이 성립하는지를 분석한 결과가 <표 3-10>에 요약되어 있음
- 회귀분석에 사용한 모형은 오쿤(Okun,1962)이 사용한 1계차분모형(first-difference model)이며 추정식은  $\Delta ut = a + byt$  , 여기서  $\Delta ut$ 는 실업률(청년실업률)의 변화,  $yt$ 는 GRDP증가율임. 이 식에서  $-a/b$  는 실업률이 일정하게 유지되기 위한 경제성장률(GRDP성장률)의 의미를 가짐
- 분석 결과 대전과 충남 지역 노동시장 모두에서 오쿤의 법칙이 성립(대부분의 추정계수가 95% 신뢰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추정됨)
- GRDP가 1%p 하락할 경우 대전의 실업률은 0.16%p 정도 높아지는 반면 충남의 실업률은 0.12%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대전의 경우가 충남에 비해 고용의 경기민감성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함

**<표 3-10> 실업률과 지역경제성장률간의 관계(오쿤의 법칙) 추정 결과**

		대전 실업률	충남 실업률
a	계수(coefficient)	0.6791	1.0172
	(t값)	(2.3301)	(3.8328)
b	계수(coefficient)	-0.1578	-0.1234
	(t값)	(-3.1908)	(-4.1916)
$-a/b$		4.30	8.24
Adj-R2		0.29	0.42

자료 : 통계청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역계정, 각년도

## 2. 대전시의 취업자 분석

### 1) 취업자수의 변화 및 변화 요인

- 최근 수년간 대전의 노동시장에서는 취업자(일자리)수가 증가하고 고용률이 빠르게 상승하는 등 매우 분명한 양적 개선의 모습을 보이고 있음

<표 3-11> 대전시 주요 고용지표 추이 (2010 ~ 2015년)

(단위 : 천명, %)

연도	15세이상인구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율
2010	1,232	728	702	26	59.1	3.6	57
2011	1,244	739	713	26	59.4	3.6	57.3
2012	1,262	753	726	28	59.7	3.7	57.5
2013	1,276	759	736	23	59.5	3.1	57.7
2014	1,288	792	765	27	61.5	3.4	59.4
2015	1,293	805	777	28	62.2	3.5	60.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취업자수의 증가는 15세이상인구의 증가,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 실업률의 감소(취업률의 상승)라는 세 요인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요인에 의해 결합적으로 발생함. 대전의 취업자증가는 이 세 요인 중 어느 요인에 의해 나타난 것인가?
- 취업자수( $E$ )와 취업자수의 증가율( $\dot{E}$ ):

$$E = P \times \frac{L}{P} \times \frac{E}{L}$$

$$\dot{E} = \dot{P} + \left(\frac{\dot{L}}{P}\right) + \left(\frac{\dot{E}}{L}\right)$$

(여기서  $E$ 는 취업자,  $P$ 는 생산가능인구(15세이상인구),  $L$ 은 경제활동인구,  $\frac{L}{P}$ 은 경제활동참가율,  $\frac{E}{L}$ 은 취업률<sup>18)</sup>,  $\dot{E}$ 는 취업자증가율,  $\dot{P}$ 는 생산가능인구증가율,  $\left(\frac{\dot{L}}{P}\right)$ 은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율,  $\left(\frac{\dot{E}}{L}\right)$ 은 취업률의 변화율을 각각 나타냄)

18)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의 합이므로 ( $L = E + U$ ) 취업률은  $(100 - \text{실업률})$ 과 동일하다. ( $1 = \frac{E}{L} + \frac{U}{L}$ )

- 즉, 취업자수 증가율은 생산가능인구증가율(인구효과)과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율(경활효과), 그리고 취업률의 변화율(취업률 효과)의 합으로 표시될 수 있음
- <표 3-12>는 2010~2015년 사이의 대전시 취업자수의 증가 요인을 인구효과, 경활효과, 취업률효과와 세 요인별로 분해해서 살펴 본 결과임
- 이 기간 동안 대전에서는 75.5천명(증가율 10.76%)의 취업자가 늘어났음. 이러한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은 경제활동참가율 상승, 다음으로는 생산가능인구의 증가인 것으로 나타났음

**<표 3-12> 대전 취업자 증가(2010~2015년)의 요인 분해**

(단위 : 천명,%)

취업자 증감	취업자 증가율	인구 효과	경활 효과	취업률 효과
75.5	10.76	4.98	5.31	0.18

자료 :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 결국 최근 대전의 취업자 증가는 노동공급의 증가(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증가, 경제활동참가율의 상승)가 주도한 것임
- 이처럼 취업자의 증가가 수요 증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노동공급의 증가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은 일자리의 질의 하락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함

## 2) 대전시의 고용구조 (일자리의 내용) 현황 및 변화

- 최근 대전시의 노동시장에서 고용률이 상승하고 취업자수가 늘어나는 등 지표상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늘어난 일자리가 반드시 좋은 일자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전절에서의 논의한 바와 같이 취업자의 증가가 노동공급 증가에 주로 기인한 것이라면 일자리의 질은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그 결과 취업자 가운데에서 기존의 일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직하는 등의 노동이동(turnover)이 발생할 가능성도 큼. 이하에서는 산업별, 직업별, 종사상의 지위별로 대전 지역 일자리의 내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분석하여 이러한 의문에 대해 답해보고자 함

- 분석을 위해서는 주로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의 원자료를 사용하였음. 지역별고용조사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발표되지 않는 소지역인 시·군 단위 고용사정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히 설계된 조사이며 경제활동인구조사와는 표본추출 방법과 추정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음. 결과적으로 시도단위나 전국단위로 집계했을 경우에 양 조사 간에 추정치의 차이가 발생하며 두 조사 결과를 직접 비교할 수 없음.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가 더 바람직하겠지만 원자료에서 지역별코드를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대신 지역별고용조사 자료를 활용하기로 함

### (1) 산업별 고용구조의 변화

- 2015년 대전시 취업자의 산업별 비중을 살펴보면 도소매업의 비중이 12.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제조업 등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음
- 최근 5년(2010년~2015년)간 취업자가 증가한 산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업,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이며 취업자가 감소한 산업은 제조업, 도소매업, 금융보험업 등으로 나타났음
- 산업별 일자리 변동의 특징으로는 일자리 구성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들 수 있음. 좋은 일자리로 볼 수 있는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취업자와 그 구성비가 증가하는 한편으로 양질의 일자리라고 보기는 힘든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의 일자리 비중도 .같이 증가하고 있음
- 일자리 감소가 크게 나타난 제조업, 도소매업, 금융보험업 등은 최근 경기침체 과정에서 구조조정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표 3-13〉 대전시 일자리의 변동(산업별)

(단위 : 천명, %)

산업	2010년		2015년		증감	증가율
	취업자	비중	취업자	비중		
농업·임업 및 어업	-	0.0	-	-	-	-
광업	-	0.0	-	-	-	-
제조업	93,245	13.2	76,443	9.7	-16,802	-18.0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2,765	0.4	4,726	0.6	1,961	70.9
하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3,743	0.5	2,850	0.4	-893	-23.9
건설업	65,367	9.2	61,946	7.9	-3,421	-5.2
도매 및 소매업	116,133	16.4	99,789	12.7	-16,344	-14.1
운수업	40,539	5.7	41,733	5.3	1,194	2.9
숙박 및 음식점업	51,703	7.3	66,081	8.4	14,378	27.8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9,557	2.8	24,109	3.1	4,552	23.3
금융 및 보험업	29,438	4.2	18,783	2.4	-10,655	-36.2
부동산업 및 임대업	14,324	2.0	19,939	2.5	5,615	39.2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31,370	4.4	55,297	7.0	23,927	76.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41,483	5.9	48,480	6.2	6,997	16.9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36,727	5.2	40,010	5.1	3,283	8.9
교육서비스업	57,522	8.1	72,443	9.2	14,921	25.9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43,146	6.1	76,203	9.7	33,057	76.6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11,698	1.7	14,673	1.9	2,975	25.4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42,734	6.0	49,838	6.4	7,104	16.6
가구 내 고용활동	5,773	0.8	4,775	0.6	-998	-17.3
계	707,266	100.0	784,649	100.0	77,373	10.9

자료 :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 (2) 직업별 고용구조의 변화

- 대전 지역의 취업자를 직종별로 살펴보면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의 비중이 25.4%로 가장 높은 가운데 고 지속적인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사무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전문가의 비중이 높지만 이것이 모두 양질의 일자리는 아님.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에는 각종 학원이나 교습소의 강사가 포함되며 이들의 증가가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수요는 대체로 경기민감하며 고용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임금 등 근로조건 열악한 경우가 많음
- 최근 5년간의 직업별 일자리의 변동 내역을 보면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의 증가가 가장 뚜렷하며 다음으로 단순노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등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전술한 바와 같이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의 증가를 ‘좋은 일자리’의 증가로 단순화시키기 힘든 사실을 감안한다면 기간 중 대전의 일자리 증가는 상당 부분 ‘질 낮은 일자리’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표 3-14> 대전시 일자리의 변동(직업별)**

(단위 : 천명, %)

직업	2010년		2015년		증감	증가율
	취업자	비중	취업자	비중		
관리자	7,956	1.1	14,169	1.8	6,213	78.1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152,598	21.6	199,336	25.4	46,738	30.6
사무종사자	125,063	17.7	136,494	17.4	11,431	9.1
서비스종사자	69,719	9.9	92,848	11.8	23,129	33.2
판매종사자	100,840	14.3	81,647	10.4	-19,193	-19.0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11,318	1.6	6,095	0.8	-5,223	-46.1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78,886	11.2	71,552	9.1	-7,334	-9.3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73,337	10.4	71,833	9.2	-1,504	-2.1
단순노무종사자	87,559	12.4	110,675	14.1	23,116	26.4
계	707,276	100.0	784,649	100.0	77,373	10.9

자료 :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 (3) 종사상 지위별 고용구조의 변화

- 종사상 지위는 취업자가 실제로 일하고 있는 신분 혹은 기능 상태에 따라 6가지로 구분함. 종사상지위는 크게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로 구분되며, 임금근로자는 다시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로, 비임금근로자는 고용주(종업원을 둔 자영업주)와 자영업자(종업원 없는 자영업자)로 구분됨
- 상용근로자란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정규직원 또는 특별한 고용계약이 없이 기간이 정해져있지 않더라도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직원으로 상여금 및 퇴직금 등의 각종 수혜를 받는 자를 의미함
- 임시근로자란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자, 또는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상여금 및 퇴직금의 비수혜자를 의미함
- 일용근로자란 임금 또는 봉급을 받고 고용되어 있으나,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 또는 일정한 사업장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일한 대가를 받는 자를 의미
- 대전지역의 임금근로자 비중은 78.8%(상용직 52.4%, 임시직 20.0%, 일용직 6.4%),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은 21.2%(고용주 6.9%, 자영업자 11.3%, 무급가족종사자 2.9%)로 나타났음

〈표 3-15〉 대전시 일자리의 변동(종사상의 지위별)

(단위 : 천명, %)

종사상의 지위	2010년		2015년		증감	증가율
	취업자	비중	취업자	비중		
상용직	354,460	50.1	411,134	52.4	56,674	16.0
임시직	130,003	18.4	157,109	20.0	27,106	20.9
일용직	57,560	8.1	50,258	6.4	-7,302	-12.7
고용주	49,819	7.0	54,463	6.9	4,644	9.3
자영업자	95,089	13.4	89,020	11.3	-6,070	-6.4
무급가족종사자	20,335	2.9	22,665	2.9	2,330	11.5
계	707,276	100.0	784,649	100.0	77,373	10.9

자료 :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 최근 5년간 가장 많이 늘어난 일자리는 상용직이지만 임시직 역시 큰 폭으로 늘어났으며 임시직의 증가율(20.9%)이 상용직 증가율(16.0%)을 앞서고 있음

-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감소하였음
- <표 3-16>는 최근 5년간 대전시의 고용형태별 취업자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대전지역에서는 전국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정규직근로자의 증가가 컸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여기서 비정규직은 한시적 또는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용역·호출 근로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를 의미함

**<표 3-16> 대전지역 노동시장의 고용형태 변화**

(단위 : 천명, %)

구분	2009. 8			2014. 8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감		
	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전국	16,479	10,725	5,754 (34.9)	18,776	12,699	6,077 (32.4)	459	395	65 (14.1)
대전	539	337	202 (37.5)	590	365	225 (38.1)	10	6	5 (45.1)

주 : ( )안은 임금근로자 대비 비정규직 근로자 구성비(%)  
 자료 : 통계청, 2009. 8월과 2014.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부가조사 결과

**(4) 연령별 고용구조의 변화**

**<표 3-17> 대전시 일자리의 변동(연령별)**

(단위 : 천명, %)

연령	2010년		2015년		증감	증가율
	취업자	비중	취업자	비중		
청년층(15~29세)	120,166	17.0	136,849	17.4	16,683	13.9
핵심연령층(30~49세)	382,420	45.9	379,109	48.3	-3,311	-0.9
중년층(준고령자:50~54세)	88,481	12.5	97,203	12.4	8,722	9.9
장년층(고령자:55세 이상)	116,199	16.4	171,487	21.9	55,288	47.6
계	707,276	100.0	784,649	100.0	77,373	10.9

자료 :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 2015년 대전시의 연령별 취업자 비중은 30~40대의 핵심연령층(48.3%) > 55세 이상 고령자(21.9%) > 15~29세 청년층(17.0%) 순으로 나타남

- 최근 5년간 핵심연령층 취업자수는 줄어든 반면 55세 이상 고령(장년층)취업자가 크게 증가하였음
- 40대 이후부터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낮아지고 임금근로자 중에서도 상용직 비중이 낮아지는 등 고용안정성이 저하되기 시작하며 50대 이후에는 전체 취업자 중 상용직의 비중이 절반 이하로 하락
- 50대 후반의 경우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30%를 상회. 특히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생계형 자영업자)의 비율이 증가

**<표 3-18> 대전 연령별-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비중**

(단위: %)

구분	종사상 지위								합계
	임금근로자				비임금 근로자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소계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소계	
청년층	57.7	31.9	4.7	94.3	1.5	2.7	1.5	5.7	100.0
30대	65.6	15.1	2.8	83.5	6.2	8.6	1.8	16.5	100.0
40대	55.4	14.8	5.6	75.8	9.9	11.3	3.0	24.2	100.0
중년	44.7	18.4	8.5	71.6	9.3	14.7	4.5	28.4	100.0
장년	35.3	22.7	11.3	69.3	7.3	19.3	4.1	30.7	100.0

**(5) 학력별 고용구조**

○ 학력별 취업자 구성

- 2015년 대전시 취업자의 학력별 구성은 대졸 이상의 비중이 52.1%에 달해 고학력 노동시장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
- 중졸 이하의 취업자는 그 수와 비중이 급격히 감소한 반면 대학(전문대 포함) 이상 졸업자의 숫자와 비중은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표 3-19> 대전시 일자리의 변동(학력별)**

(단위 : 천명, %)

학력별	2010년		2015년		증감	증가율
	취업자	비중	취업자	비중		
중졸 이하	124,297	17.5	102,741	13.1	-21,556	-17.3
고졸	261,892	37.0	273,219	34.8	11,327	4.3
대졸 이상(전문대 포함)	321,077	45.4	408,689	52.1	87,612	27.3
계	707,276	100.0	784,649	100.0	77,383	10.9

자료 :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 대전지역 교육기관에서의 인적자본 형성 현황

- 2015년 대전의 고등학교 재학생수는 58,598명이며 이중 특성화고가 9,363명으로 16.0%를 점하고 있음. 특성화고 재학생의 비율은 전국평균보다는 0.9%p 정도, 광역시 평균에 비해서는 1.6% 포인트 가까이 낮아서 대전 지역 고등학교에서의 인문화 현상이 타 지역보다 두드러진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3-20> 지역 고등학교 재학생 수 및 진학률 (2015년)**

(단위 : 명, %)

구분	재학생					진학률		
	계	일반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	졸업자	진학자	진학률
대전	58,598 (100.0)	37,402 (63.8)	3,203 (5.5)	9,363 (16.0)	8,630 (14.7)	20,434	15,157	74.2
광역 시	780,717 (100.0)	517,430 (66.3)	35,541 (4.6)	137,390 (17.6)	90,356 (11.6)	274,546	184,525	67.2
전국	1,788,266 (100.0)	1,278,008 (71.5)	67,529 (3.8)	302,021 (16.9)	140,708 (7.9)	615,462	435,650	70.8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 (재학생 : 교육통계서비스 > 교육통계 > 유초중등통계 > 학교급별 >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 > 학생 > 시도별 지역규모별 설립별 학생수, 진학률 : 교육통계서비스 > 통계간행물 > 2015년 교육통계연보 > 학교 기본통계 > 고등학교 현황 > 졸업 후 상황)

- 대전지역의 전문대학이상의 재학생수는 150,477명으로 이중 공학계열이 28.8%, 인문사회계열이 36.0%를 차지하고 있음. 한편 대전지역의 대학원 학생 수는 21,407명으로서 이중 공학계열 재학생이 32.2%, 인문사회계열 재학생이 32.3%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표 3-21> 지역 대학별 계열별 재학생 현황 (2015년)**

(단위 : 명)

구분	인문계열	사회계열	교육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	의약계열	예체능계열	합계
전문대	643	6,039	1,313	8,291	2,773	7,316	3,747	30,122
산업대	566	506	-	3,024	324	-	211	4,631
교육대	-	-	-	-	-	-	-	-
대학	13,913	32,486	4,600	31,985	15,006	7,824	9,910	115,724
합계	15,122	39,031	5,913	43,300	18,103	15,140	13,868	150,477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 (교육통계서비스 > 교육통계 > 대학통계 > 주제별 > 학생 > 전문대학, 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 시도별 대계열별 학생수(재적생수))

**<표 3-22> 지역 대학원 계열별 재학생 현황 (2015년)**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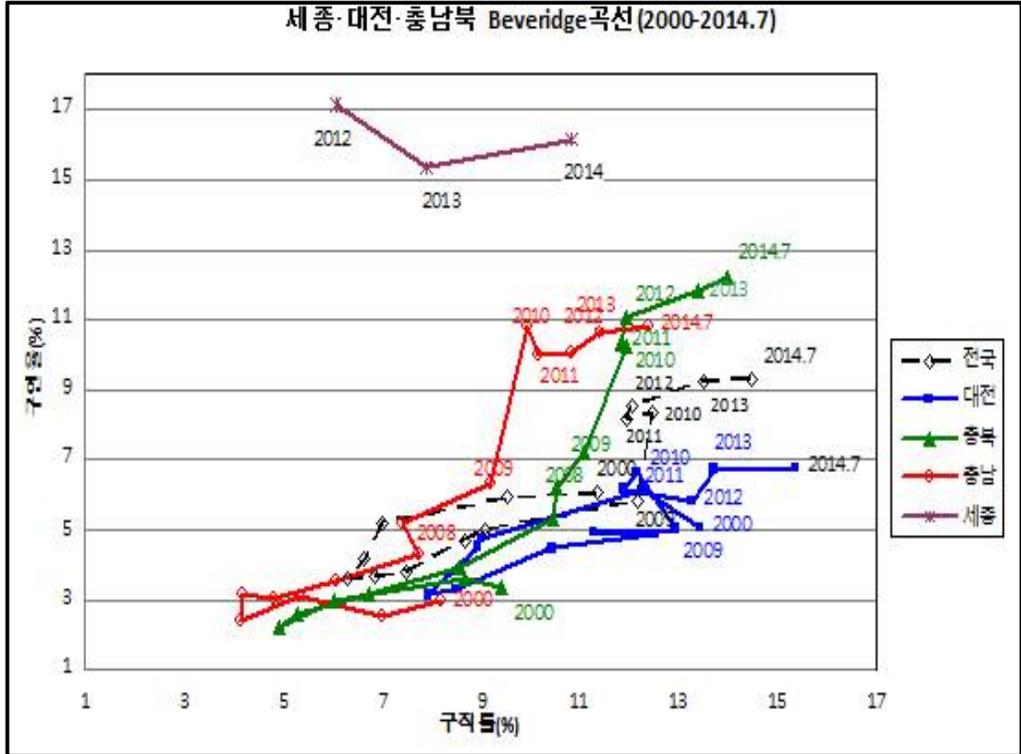
구분	인문계열	사회계열	교육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	의약계열	예체능계열	합계
석사	1,823	3,870	1,414	3,536	1,211	1,501	564	13,919
박사	385	847	154	3,350	2,025	591	136	7,488
합계	2,208	4,717	1,568	6,886	3,236	2,092	700	21,407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 (교육통계서비스 > 교육통계 > 대학통계 > 주제별 > 학생 > 대학원 > 시도별 대계열별 학생수(석박사))

### 3. 대전시의 인력수급 현황

○ 대전지역 인력수급 불일치(mis-match) 현황

- [그림 3-15]의 충청권 Beveridge곡선에 의할 때 대전지역은 전국 추세보다 상당히 빠르게 구직률이 높아져 왔고 반면에 구인율은 별로 높아지지 않아서 노동시장의 수급불일치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음



[그림 3-15] 대전지역 Beveridge곡선 (2000 ~ 2014. 7)

주 : 여기서 구인률과 구직률은 연간 합계기준으로 각각 신규구인자수 / (신규구인자수 + 총취업자)의 백분율, 신규구직자수 / (신규구직자수 + 총취업자수)의 백분율임. 다만 2014의 자료는 2014년 1월 ~ 2014. 7월의 평균을 연간으로 환산하여 계산함.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자료』로 도표화하였으며 배진한(2014)에서 인용.

- 직업별로 노동력 수급상황을 살펴보면 대전지역에서 구인배율이 높은 직업들은 재료, 화학, 식품가공, 섬유 및 의복 등의 제조업 관련 직업과 영업 및 판매 관련직,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등으로 나타남

<표 3-23> 대전지역 직업별 구인배율 추이

구분	2013	2014	2015
전직업	0.49	0.41	0.46
관리직	0.30	0.15	0.18
경영, 회계, 사무 관련직	0.40	0.44	0.51

구분	2013	2014	2015
금융, 보험 관련직	0.37	0.31	0.28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 관련직	0.25	0.19	0.33
법률, 경찰, 소방, 교도 관련직	0.25	0.21	0.27
보건 및 의료 관련직	0.27	0.23	0.33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0.28	0.29	0.88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관련직	0.39	0.26	0.28
운전 및 운송 관련직	0.64	0.53	0.66
영업 및 판매 관련직	1.07	0.87	1.00
경비 및 청소 관련직	0.39	0.21	0.26
미용, 숙박, 여행, 오락 및 스포츠 관련직	0.12	0.16	0.15
음식서비스 관련직	0.36	0.30	0.40
건설 관련직	0.29	0.48	0.38
기계 관련직	0.96	0.70	0.56
재료 관련직(금속·유리·점토 및 시멘트)	1.63	1.17	0.96
화학 관련직	1.01	0.65	0.52
섬유 및 의복 관련직	0.63	0.82	0.96
전기, 전자 관련직	0.94	0.75	0.60
정보통신 관련직	0.67	0.54	0.55
식품가공 관련직	0.95	1.05	1.13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 및 생산 단순직	0.81	0.59	0.80
농림어업 관련직	0.63	0.16	0.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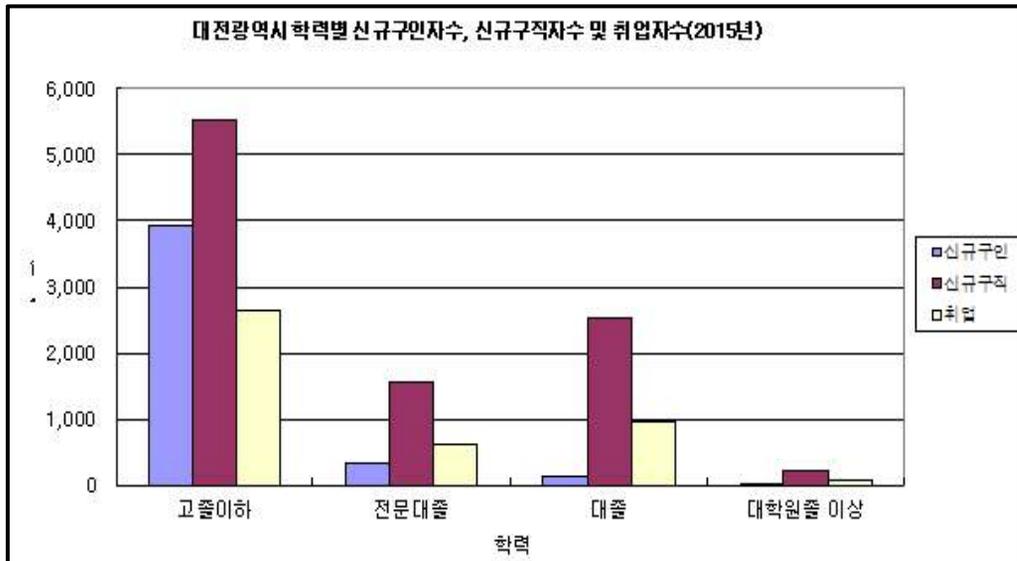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 자료.

- 그런데 이러한 인력수급 불균형 또는 미스매치는 우리나라에서는 근본적으로 학력간 인력수급 미스매치로 환원될 수도 있음. 대전지역에서 구인배율과 인력 부족률이 높은 직업들, 즉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영업 및 판매 관련직, 기계 관

련직, 재료 관련직(금속·유리·점토·시멘트), 화학 관련직, 섬유 및 의복 관련직, 식품가공 관련직,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 및 생산단순직 등의 직업들이 대체로 고졸이하 취업자의 비중이 매우 높은 저학력 직업들이므로 저학력 직업들에서는 인력부족률과 구인배율이 높고 반대로 고학력 직업들에는 인력부족률과 구인배율이 낮은 현상이 뚜렷하다는 것임.

○ 부문별 인력수급 불일치

- [그림 3-16]는 대전지역에서 학력별 인력수급 미스매치가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음. 전문대졸과 4년제 대졸자들에 대한 신규구인은 신규구직자수에 비해 지나치게 낮음. 뿐만 아니라 2005년경부터 그동안 고졸 이하의 구인배율이 계속 상승하는 추세였지만 전문대졸 이상부터는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주어 왔음(배진한(2012))



[그림 3-16] 대전지역 학력별 신규구인자수, 신규구직자수, 취업자수 (2015년)

주 : 신규구인에서 '학력무관' 범주는 직업수행에 특별한 고학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구인측의 수요를 반영한다고 보아 고졸이하 범주에 합산하여 도표화함.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의 워크넷 자료 2015년 1~12월 평균 기준.

- <표 3-24>에 의하면 2015년 대전지역 구인배율이 고졸이하 0.71, 전문대졸 0.21, 4년제 대졸 0.06, 대학원졸 이상 0.05임. 이는 4년제 대졸 학력 노동력의 경우 신규구직자 100명에 대하여 신규구인자는 평균적으로 6명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미임. 앞에서 언급한 직업별 인력수급 미스매치가 대부분 학력별 인력수급 미스매치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 그림들로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는 것임. 그런데 학력간 미스매치 상황은 앞으로 청년층의 급속한 고학력화 때문에 결국 산업간·직종간·연령간 인력수급 미스매치 상황으로 전개될 수도 있을 것임

**<표 3-24> 학력별, 임금수준별 구인배율, 취업률, 구인성공률 비교 (2015년)**

(단위: 취업률과 구인성공률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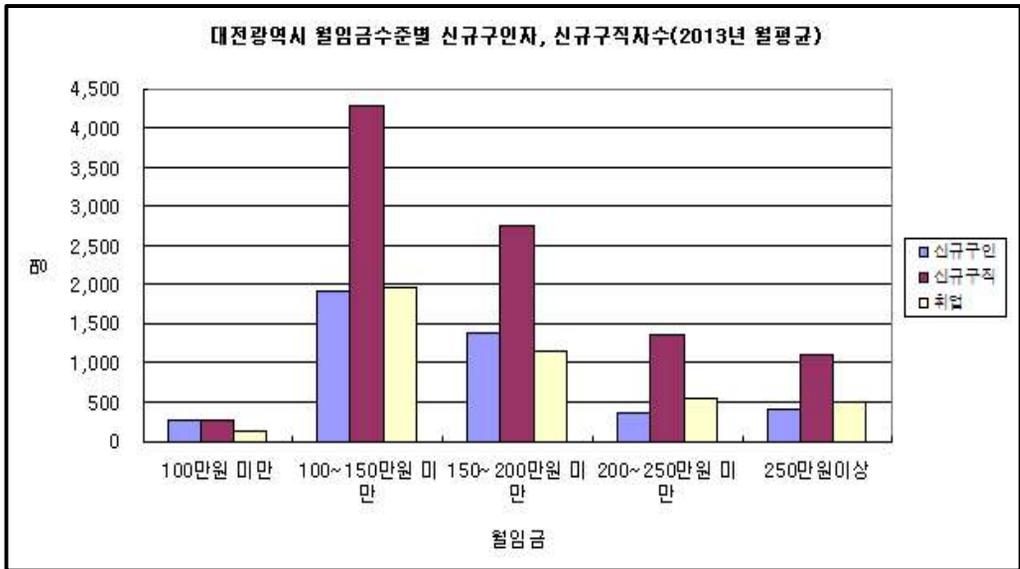
구분		대전지역			수도권		
		구인배율	취업률	구인성공률	구인배율	취업률	구인성공률
학력별	고졸이하	0.71	48.0	67.6	0.96	37.1	38.6
	전문대졸	0.21	39.9	188.5	0.20	34.0	170.8
	4년제 대졸	0.06	37.9	657.1	0.04	31.3	816.8
	대학원졸 이상	0.05	38.6	852.7	0.02	30.3	1,483.5
임금수준별	100만원 미만	1.01	48.0	47.4	0.42	45.7	109.4
	100 ~ 150만원 미만	0.45	46.2	103.0	0.80	35.0	43.4
	150 ~ 200만원 미만	0.50	41.8	83.2	0.68	36.8	53.9
	200 ~ 250만원 미만	0.27	39.2	144.3	0.48	33.0	69.3
	250만원 이상	0.38	44.8	116.6	0.23	32.1	141.6
전 체		0.45	43.9	98.0	0.60	35.1	58.7

주 : 여기서 구인배율은 신규구인자수를 신규구직자수로 나눈 값, 취업률(%)은 당해기간동안 구직에 성공한 사람(전기 구직자 포함)을 신규구직자수로 나눈 값, 그리고 구인성공률(%)은 당해기간동안 구직에 성공한 사람(전기 구직자 포함)을 신규구인자수로 나눈 값임. 신규구인에서 ‘학력무관’ 범주는 직업수행에 특별한 고학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구인측의 수요를 반영한다고 보아 고졸이하 범주에 합산하여 계산함. 그리고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도의 합계를 의미함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 자료, 2015년 1~12월 평균 기준

- 취업률 실적은 고졸이하 범주를 제외하면 학력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 이는 바로 많은 대졸인력이 상당한 탐색기간을 거치면서 저학력 일자리로 하향취업해가기 때문으로 추정됨

- [그림 3-17] 역시 저임금 일자리는 미스매치가 크지 않지만 고임금 일자리는 미스매치가 심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음. <표 3-24>을 참고할 때 대전지역의 경우 취업률은 수도권보다 상당히 높지만 고학력 일자리와 고임금 일자리의 경우 수도권에서 구인성공률이 훨씬 높음을 알 수 있음
- 이상의 인력수급 불일치 논의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음. 대전지역 노동시장에서는 최근까지 구인율은 거의 높아지지 않고 구직률만 상대적으로 계속 높아지고 있어서 구직자들에게 매우 불리한 수급불일치현상이 심화되는 실정에 있음. 그리고 저학력 직업들에서는 인력부족률과 구인배율이 높고 반대로 고학력 직업들에는 인력부족률과 구인배율이 매우 낮은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결과적으로 제조업 관련 저학력 직업들의 숙련미스매치 완화 및 해결은 물론이고 고학력 구직자들의 취업가능성 제고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등장할 것으로 보임. 더욱이 최근 정책적 관심이 높아진 베이비붐세대 은퇴가 본격화되어 간다면 이들 역시 고용정책의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됨



[그림 3-17] 대전지역 월임금수준별 신규구인자수, 신규구직자수, 취업자수(2015년)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 자료, 2015년 1~12월 평균 기준

## 4. 대전시의 미취업자(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분석

### 1) 실업자

#### (1) 대전시 실업자 현황

- <표 3-15>에서 보듯이 대전지역의 취업자수는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실업률은 좀처럼 하락하지 않고 있음. 그 이유는 생산가능인구의 증가와 경제활동참가율의 상승으로 노동력 공급이 늘어났기 때문임. 특히 청년층 노동시장의 경우 대학진학률이 정점에 달했던 시기(2008년)<sup>19)</sup>를 전후하여 입학했던 학생들이 최근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당분간 높은 수준의 실업률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됨
- 경제활동참가율의 상승은 특히 중장년층과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에 의해 추동되고 있음. 취업난, 특히 고학력 청년층의 취업난이 이어지면서 진학, 휴학, 졸업유예 등으로 노동시장 진입을 미뤘던 청년층들이 시간이 지나도 고용상황이 충분히 개선되지 않음에 따라 노동시장으로 복귀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통계청의 지역고용조사 원자료(2015년 하반기)를 이용하여 대전지역 실업자를 성별, 학력별, 연령계층별로 세분하여 살펴본 결과를 <표 3-25>에 요약하였음
- 남자의 실업률이 여자보다 높게 나타남
- 연령계층별로는 청년실업률이 5.8%로 가장 높고 연령대가 상승할수록 실업률은 하락하고 있음
- 학력별로는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인문사회계열 졸업자보다 자연계열과 예체능계열 졸업자들의 실업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인문사회계열 졸업자가 범용적 지식을 배경으로 다양한 분야의 직업을 선택하는데 비해 이공계열 졸업자는 자신의 전공에 부합하는 일자리를 위해서 상대적으로 더 긴 직업탐색 기간을 가지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됨. 이 경우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가능성은 이공계열 졸업자가 더 높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 점에 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됨

19) 대학진학률은 합격자 기준으로는 2008년 83.8%, 등록자 기준으로는 2009년 77.8%를 정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하여 2014년에는 등록자기 준 70.9%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시스템)

〈표 3-25〉 대전의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 : %)

구분		대전	
		실업자	실업률
계		21,521	2.7
성별	남자	14,388	3.1
	여자	7,134	2.1
연령계층별	청년층	8,444	5.8
	3~40대	9,037	2.3
	50~54세	1,798	1.8
	55세 이상	2,242	1.3
학력별	중졸이하	1,994	1.9
	고졸	8,600	3.1
	대졸 이상	10,928	2.6
	(인문사회계열)	3,805	2.7
	(예술·체육계열)	1,031	3.2
	(교육/사범계열)	347	1.0
	(자연계열)	2,279	4.7
	(공학계열)	2,807	2.2
(의약계열)	658	2.0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4 하반기

## (2) 실업 기간

- 2015년 대전지역 실업자의 평균구직활동기간은 2.78개월이며 전체의 38.5%정도가 3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구직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나서 실업기간이 비교적 긴 편임
- 특히 2010년에 비해 5개월 이상 장기실업자의 비율이 크게 높아졌으며 평균실업지속기간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음
- 〈표 3-26〉에 나타난 구직기간은 현재 구직활동 중인 실업자의 지속 구직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지 구직에 성공하여 취업자로 전환된 사람들의 완료 구직기간을 나타내는 것은 아님

**<표 3-26> 대전 실업자의 구직 기간**

(단위 : %, 개월)

구분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이상	평균
2010년	36.9	23.6	20.9	7.6	11.1	2.39
2015년	33.8	27.7	16.8	3.0	18.7	2.78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2010년 3분기, 2015년 하반기 원자료에서 계산

**(3) 실업자의 구직 경로**

- 구직자들이 구직정보를 얻는 경로는 인터넷(취업사이트/잡카페 등)을 포함한 대중매체의 비중이 37.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친지 등 인적네트워크를 통한 비율이 23%로 조사되었음. 공공직업알선기관(고용센터, 지자체의 일자리센터 등)과 민간직업알선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음
- 2010년과 비교하여 보면 공공직업알선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줄어들고 민간직업알선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크게 높아졌음. 이는 인터넷의 활용도가 크게 높아진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보다 적극적인 공공직업알선기능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함

**<표 3-27> 대전 실업자의 구직 경로**

(단위 : %)

구분	공공 직업 알선기관	민간 직업 알선기관	대중매체	학교, 학원	친척, 친구, 동료	계
2010년	24.0	10.1	37.9	3.8	24.3	100.0
2015년	18.2	20.4	37.1	1.4	23.0	100.0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2010년 3분기, 2015년 하반기 원자료에서 계산

## 2) 비경제활동인구

### (1) 대전시 비경제활동인구 현황

〈표 3-28〉 대전 비경제활동인구 현황

(단위 : %)

구분		2010년		2015년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참 가율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계		509,263	58.7	485,268	62.4
성별	남자	177,807	70.7	167,791	73.5
	여자	331,456	47.2	317,477	51.8
연령계층별	청년층	192,495	39.9	179,148	44.8
	3~40대	127,618	75.4	98,536	79.8
	50~54세	27,887	76.2	24,869	79.9
	55세 이상	161,262	42.1	182,715	48.7
학력별	중졸이하	225,404	35.9	197,998	34.6
	고졸	191,725	58.4	179,831	61.0
	대졸 이상	92,134	78.2	107,439	79.6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4 하반기

- 2015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0년에 비해 크게 높아졌음. 경제활동참가율의 상승은 성별로는 여성이, 연령별로는 청년층과 고령층이 주도하였음

### (2) 구직단념자(discouraged worker)와 NEET

- 고용문제는 단순히 일자리 자체가 부족하다기 보다는 구직자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성격이 더 큰 문제일 수 있음. 노동시장에는 취업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구직활동을 포기하는 구직단념자도 많고 적극적인 취업의지 없이 ‘쉬었음’ 등의 상태로 노동시장 주변에 머무는 비경제활동인구도 상당수 존재함

- 특히 취업에 소극적인 청년층 미취업 비경제활동인구를 ‘청년무업층’ 혹은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라고 부르고 있음.<sup>20)</sup> 최근 취업이 힘들어지고 고용의 질도 하락하면서 NEET가 증가하고 있음. 대전의 청년NEET현황에 대해서는 최효철(2015) 참조

○ 구직단념자

- 취업을 희망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구직활동을 한 적이 있으면서도 최근 4주 이내에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서 더 이상실업자가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구직단념자(실망노동자)의 수가 2015년 하반기 기준으로 10,857명에 달하고 있음. 이는 전체실업자 21,521명의 50.4%에 해당
- 만약 구직단념자를 사실상의 실업자로 간주하여 이들을 포함해서 실질적 실업률을 계산한다면 대전의 실질실업률은 4.0%로 공식실업률 2.7%보다 1.4%p 높게 나타나게 됨

**<표 3-29> 대전 구직단념자**

(단위 : 명, %)

구분	대전			
	실업자	구직단념자	실업률	실질실업률
2010년	17,819	8,407	2.5	3.6
2015년	21,521	10,857	2.7	4.0

자료 : 통계청,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3년 하반기, 2014년 하반기 원자료에서 계산

- 이처럼 비경제활동인구 중에도 숨겨진 사실상의 실업자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으므로 실업자 숫자나 실업률만으로는 노동시장에서의 고용사정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음

20) 구체적인 니트의 개념과 포괄범위에 대해서는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존재. 예컨대 실업자를 니트에 포함시킬지의 여부에 대해서 선행연구들 간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음. 연구자에 따라서는 실업자를 포함한 니트를 ‘구직 니트’로, 실업자를 제외한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한 니트를 ‘비구직 니트’로 구분하기도 함.(남재량(2011)) 니트가 가지는 전통적인 실업자와 다른 특성을 감안해서 구직활동 중인 실업자는 니트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대부분

- 지역의 구직단념자들이 취업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직활동을 포기한 이유는 <표 3-30>과 같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유는 숙련의 미스매치 즉, 교육·기술·경험의 부족(18.6%)과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10.7%)임. 이전에 구직에 실패한 경험(20.0%) 및 임금과 근로조건의 불합치, 즉, 눈높이의 차이(20.0%)가 그 다음 요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구직단념자를 노동시장으로 재진입 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임금과 숙련의 미스매치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됨

**<표 3-30> 구직단념자 비구직사유**

(단위 : 명, %)

사유	구직단념자	비중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1161.1	10.7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이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2178.0	20.1
근처(주변)에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726.4	6.7
교육,기술,경험이 부족해서	2023.4	18.6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다고 고용주가 생각할 것 같아서	752.7	6.9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2173.9	20.0
육아	178.5	1.6
가사	288.6	2.7
통학	259.7	2.4
심신장애	407.0	3.7
기타	707.8	6.5
계	10,857	100.0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2014 하반기

### (3) 비경제활동인구의 활동 상태

- 비경제활동인구가 미취업 상태로 머물러 있는 가장 대표적 활동은 육아와 가사임. 육아 및 가사의 비중은 2010년 46.0%에서 2015년 40.3%로 감소하였음
- 기간 중 가장 큰 변화를 보인 활동은 ‘쉬었음’ 항목임. ‘쉬었음’의 비율은 2010년 6.9%에서 2015년 11.6%로 급증하였음. 다른 사유 없이 단순히 ‘쉬었음’이 주활동인 비경제활동인구는 취업의욕이 없거나, 취업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3-31> 비경제활동인구의 주된 활동**

(단위 : %)

활동	2010년	2015년
육아	8.3	7.5
가사	37.7	32.8
정규교육기관 통학	29.4	28.5
입시학원 통학	0.4	0.2
취업을 위한 학원, 기관 통학(고시학원, 직업훈련기관 등)	1.2	1.4
취업준비	3.3	1.7
진학준비	0.5	0.8
연로	8.8	11.4
심신장애	2.7	3.5
군입대 대기	0.2	0.4
쉬었음	6.9	11.6
기타	0.5	0.2
계	100.0	100.0

## 제 3절 임금 및 근로시간

### 1. 임금

#### 1) 성별, 연령별, 학력별 임금

- 대전지역 근로자의 3개월 평균임금은 221.8만원으로 전국 평균 227.0만원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임
- 대전의 남성 평균임금은 268.7만원으로 여성보다 65.8% 높은 수준임. 전국 평균으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68.5%의 임금프리미엄을 얻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대전의 남녀간 임금격차는 상대적으로 약간 덜한 편이라고 할 수 있음
- 모든 학력 수준에서 대전지역 근로자의 임금은 전국 평균을 하회하고 있음. 중졸 이하는 전국 대비 95.9%, 고졸은 90.0%, 대졸은 97.3%의 임금을 각각 받고 있음

**<표 3-32> 3개월 평균임금(2015년)(성별,연령별, 학력별)**

(단위 : 만원)

분류		임금	
		전국	대전
전체		227.0	221.8
성별	남자	276.3	268.7
	여자	163.9	162.1
연령별	청년층	165.7	164.5
	3~40대	259.9	244.7
	50~54세	259.2	265.4
	55세 이상	182.9	200.6
학력별	중졸 이하	126.3	121.1
	고졸	187.7	169.0
	대졸 이상(전문대 포함)	285.2	277.5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2015년 하반기) 원자료에서 계산

## 2) 산업별 임금

**<표 3-33> 3개월 평균임금(2015년)(산업별)**

(단위 : 만원)

산업	임금	
	전국	대전
전체	227.0	221.8
농업·임업 및 어업	116.4	210.3
광업	272.7	250.0
제조업	261.6	246.4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342.9	291.5
하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242.5	298.0
건설업	237.0	225.2
도매 및 소매업	197.6	189.0
운수업	242.8	235.5
숙박 및 음식점업	132.4	132.1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06.4	267.2
금융 및 보험업	325.6	289.8
부동산업 및 임대업	192.4	178.3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328.5	346.9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61.3	150.3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262.1	289.2
교육서비스업	239.0	258.3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80.3	184.3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166.4	167.8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173.2	156.9
가구내 고용활동	78.7	72.9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2015년 하반기) 원자료에서 계산

- 대전에서 임금이 가장 높은 산업은 346.9만원의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이며 다음으로 하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금융 및 보험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업 등의 순서를 보이고 있음.

- 가구내 고용활동, 숙박 및 음식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등이 대표적인 저임금산업임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하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은 대전의 임금수준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다른 산업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

### 3) 직업별 임금

**<표 3-34> 3개월 평균임금(2015년)(직업별)**

(단위 : 만원)

직업	임금	
	전국	대전
전체	227.0	221.8
관리자	532.8	514.5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283.9	291.1
사무종사자	271.3	253.0
서비스종사자	150.8	136.5
판매종사자	180.4	175.9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204.4	141.3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232.3	212.9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237.0	220.9
단순노무종사자	119.3	121.0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2015년 하반기) 원자료에서 계산

- 2015년 대전에서 가장 고임금인 직업은 관리자로서 514.5만원이며 다음으로는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가 291.1만원, 사무직이 평균 253만원 순임
- 단순노무종사자가 121만원으로 가장 저임금인 직업이며 서비스종사자의 임금도 월평균 136.5만원에 불과한 실정임
-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직업에서 대전의 임금수준은 전국 평균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4) 종사상의 지위별 임금

〈표 3-35〉 3개월 평균임금(2015년)(종사상의 지위별)

(단위 : 만원)

종사상의 지위	임금	
	전국	대전
전체	227.0	221.8
상용직	277.2	269.2
임시직	133.7	127.7
일용직	124.0	128.7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2015년 하반기) 원자료에서 계산

- 대전의 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각기 상용직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47.4%, 47.8%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2. 노동시간

### 1) 대전 취업자 평균 근로시간(성별, 연령별, 종사상의 지위별)

- 2015년 대전의 취업자 평균 주당총근로시간은 43.3시간이며 남자가 45.5시간, 여자가 40.3시간 임. 연령별로는 핵심연령층과 중년층의 주당 근로시간이 거의 같으며 청년층과 장년층의 근로시간도 거의 동일함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임금근로자보다 훨씬 긴 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상용직의 근로시간에 비해 임시직은 주당 6.2시간, 일용직은 주당 6시간 정도 근로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음
- 2010년에 비해서는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3.1시간이 단축되었음

**<표 3-36> 평균 주당 근로시간(성별,연령별, 종사상의 지위별)**

(단위 : 시간)

분류	분류	주당 총근로시간(주업+부업)	
		2010년	2015년
전체	전체	46.4	43.3
성별	남자	48.6	45.5
	여자	43.2	40.3
연령별	청년층	45.3	41.5
	3~40대	47.4	44.5
	50~54세	47.6	44.3
	55세 이상	43.6	41.5
종사상의 지위별	상용직	46.9	44.2
	임시직	42.9	38.0
	일용직	39.4	38.2
	고용주	54.2	49.1
	자영업자	48.9	47.2
	무급가족종사자	49.3	45.7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2015년 하반기) 원자료에서 계산

2) 장시간 및 단시간 근로자

**<표 3-37> 장시간 및 단시간 근로자 비율(성별,연령별, 종사상의 지위별)**

(단위 : %)

분류	분류	주당 총근로시간 (주업+부업)	
		장시간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전체	전체	33.6	16.4
성별	남자	40.1	9.8
	여자	24.9	25.3
연령별	청년층	27.9	18.9
	3~40대	34.4	11.4
	50~54세	36.3	14.5
	55세 이상	34.9	26.5
종사상의 지위별	상용직	27.4	5.9
	임시직	30.0	36.4
	일용직	32.3	40.3
	고용주	54.6	7.3
	자영업자	54.2	17.9
	무급가족종사자	42.6	30.1

- 2015년 대전의 주당 48시간 이상의 장시간노동 일자리는 전체 일자리의 약 1/3에 달하는 33.6%이며, 주당 36시간 이하의 단시간근로 일자리의 비율은 16.4%로 나타났음
- 장시간근로 일자리는 여자보다는 남자에서, 중장년층 일자리에서, 일용직과 임시직 일자리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단시간근로 일자리는 여자에서, 고령자에서, 일용직과 임시직에서 많이 관찰되었음
- 임시직과 일용직은 장시간근로의 비율도 높고 단시간근로의 비율도 높아 근로여건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판단됨

## 제 4절 기타 고용여건

### 1. 산업안전

#### 1) 산업안전(산업재해)

- 2014년 대전에서는 총 632,054명의 근로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3,151명의 산업재해자(업무상 사고 및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 혹은 부상자)가 발생하여 재해천인률(근로자 1,000명당 산업재해자 수)은 5.0으로 전국 평균 5.3보다 다소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음. 이는 서울, 전북, 경남에 이어 전국 광역시도 중에서 네 번째로 낮은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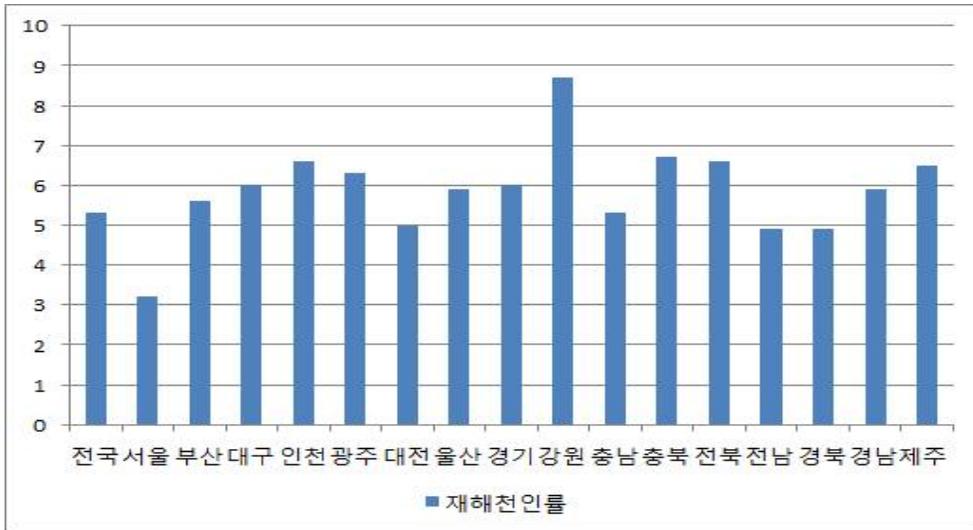
**<표 3-38> 지역별 재해천인률**

(단위 : 천인률)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국	7.7	7.7	7.2	7.1	7.0	6.9	6.5	5.9	5.9	5.3
서울	4.5	4.6	4.2	4.2	4.0	4.1	3.7	3.3	3.4	3.2
부산	9.1	9.1	8.2	8.3	8.6	8.0	7.1	6.7	6.3	5.6
대구	9.2	8.7	8.4	8.2	8.3	8.2	8.0	6.8	6.7	6.0
인천	10.5	9.2	8.7	8.5	7.8	8.2	7.4	7.2	7.2	6.6
광주	8.9	8.5	8.4	8.5	8.1	8.0	7.8	7.8	7.3	6.3
<b>대전</b>	<b>7.1</b>	<b>7.4</b>	<b>6.3</b>	<b>7.0</b>	<b>7.0</b>	<b>6.5</b>	<b>6.1</b>	<b>5.4</b>	<b>5.7</b>	<b>5.0</b>
울산	-	-	-	-	-	-	-	-	6.2	5.9
경기	8.8	8.7	8.3	8.2	7.7	8.1	7.5	6.8	6.7	6.0
강원	12.1	10.5	10.0	9.8	10.2	9.3	9.7	8.2	8.4	8.7
충남	7.6	8.0	8.0	8.1	8.6	7.5	5.6	5.6	5.8	5.3
충북	7.8	7.5	6.4	6.0	7.2	6.5	7.6	7.6	7.4	6.7
전북	10.3	10.7	8.8	8.6	10.0	9.1	8.3	7.3	7.8	6.6
전남	6.2	7.0	6.7	7.1	7.6	6.9	5.9	6.3	6.3	4.9
경북	8.0	7.6	6.6	6.0	6.0	6.4	6.2	5.6	5.5	4.9
경남	10.2	9.7	9.3	9.0	8.6	8.0	8.0	7.2	7.1	5.9
제주	7.3	8.3	7.4	7.5	7.1	6.6	6.7	6.4	6.7	6.5

출처 : 산업재해현황분석, 고용노동부

주 : 2012년 이전 울산은 경남에 포함



[그림 3-18] 지역별 재해천인율(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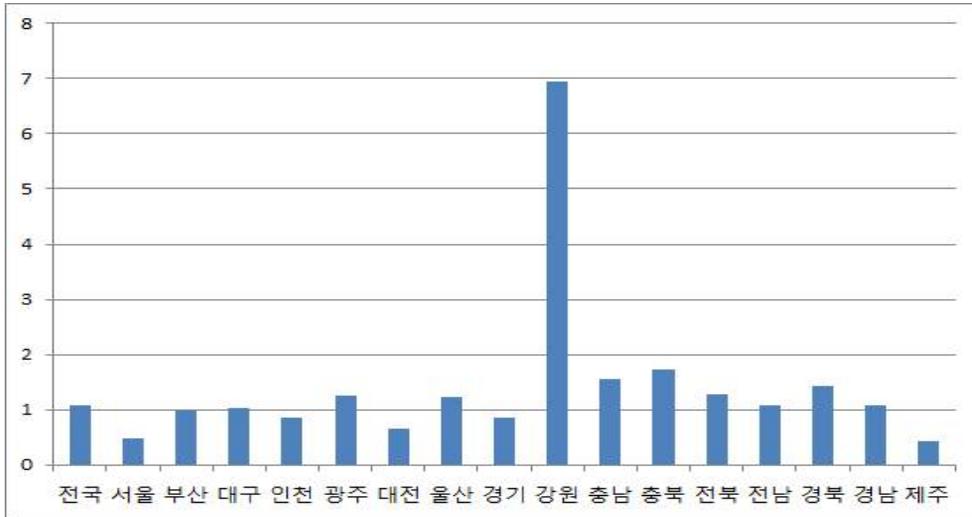
- 한편 2014년 대전지역의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수는 42명, 사망만인율(근로자 10,000인당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한 근로자 수로서 중대 재해의 비율을 의미함)은 0.66으로 전국 평균 1.08 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음. 이는 서울, 제주에 이어 광역시도 중 세번째로 낮은 수준임.
- 이처럼 대전 지역의 산업재해 발생률과 사망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전체 취업자 중 광업(천인율 105.4), 제조업(천인율 7.2), 건설업(천인율 7.3) 등 재해발생율이 높은 산업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은 도시형 산업구조 특성 때문임. 같은 대도시이면서도 서울을 제외한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대전의 재해율과 사망율이 특히 낮게 나타나는 사실 역시 지역간 산업구조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생각됨.

<표 3-39> 지역별 사망만인률

(단위 : 만인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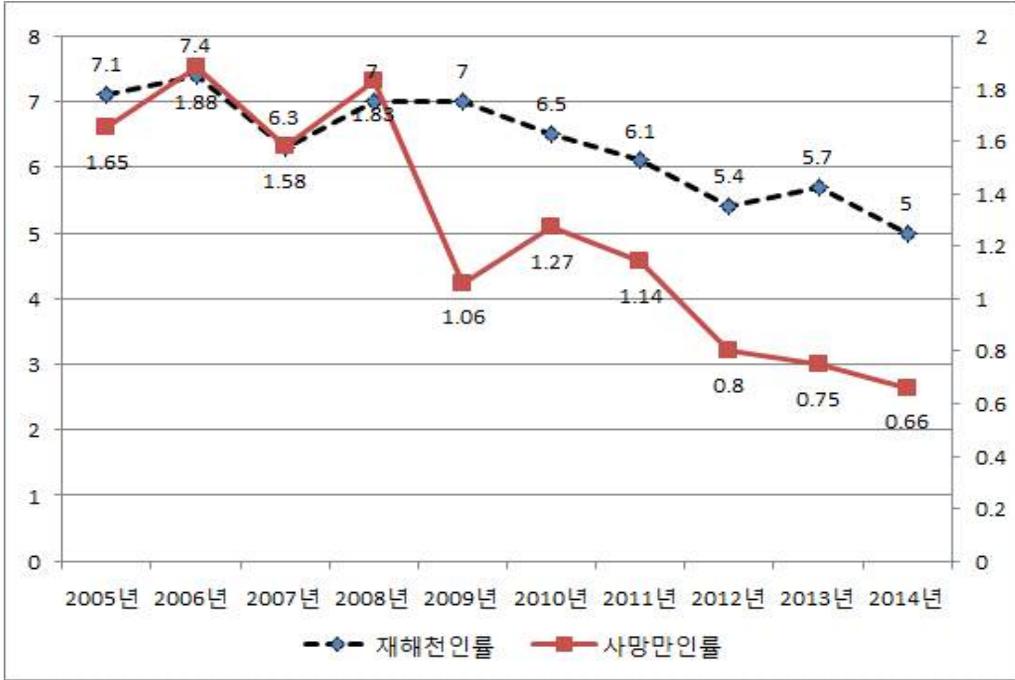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국	2.25	2.10	1.92	1.80	1.57	1.55	1.47	1.20	1.25	1.08
서울	1.32	1.13	0.98	0.91	0.79	0.81	0.65	0.50	0.56	0.49
부산	2.04	2.25	1.96	1.73	1.44	1.26	1.24	1.10	1.08	0.98
대구	2.35	1.72	1.64	1.38	1.14	1.28	1.31	0.86	1.06	1.03
인천	2.11	1.46	1.49	1.69	1.29	1.52	1.08	1.20	0.98	0.85
광주	2.42	2.72	2.11	2.32	1.79	1.60	2.15	1.67	1.80	1.26
<b>대전</b>	<b>1.65</b>	<b>1.88</b>	<b>1.58</b>	<b>1.83</b>	<b>1.06</b>	<b>1.27</b>	<b>1.14</b>	<b>0.80</b>	<b>0.75</b>	<b>0.66</b>
울산							1.61	-	1.52	1.22
경기	2.19	1.79	1.71	1.58	1.33	1.35	1.28	1.05	1.02	0.85
강원	10.38	9.87	8.88	7.52	6.81	6.66	7.30	5.59	5.89	6.94
충남	3.50	3.00	2.97	2.13	2.64	2.40	1.97	1.35	2.32	1.55
충북	1.97	2.00	2.17	2.23	2.21	1.88	2.01	1.70	1.69	1.72
전북	2.23	2.78	2.04	1.99	2.12	1.68	1.54	1.55	1.67	1.29
전남	1.52	1.69	2.14	1.79	1.73	1.86	1.52	1.36	1.74	1.08
경북	3.91	2.98	2.43	2.78	2.38	2.49	2.32	1.98	1.50	1.42
경남	2.18	2.31	1.97	2.07	1.73	1.59	1.78	1.46	1.47	1.07
제주	1.90	1.32	1.85	1.58	1.44	0.96	1.38	0.75	0.49	0.43

주 : 2012년 이전까지 울산은 경남지역으로 포함하여 계산됨.  
출처 : 산업재해현황분석, 고용노동부



[그림 3-19] 지역별 사망만인율(2014년)

- 최근 대전 지역의 산업재해발생율과 사망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특히 중대 재해의 발생을 의미하는 사망만인율은 빠른 속도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주 : 재해천인률 = (재해자수/근로자수)×1000, 사망만인율 = (사망자수/근로자수)×10000  
 자료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 각년도

[그림 3-20] 산업재해 추이(대전, 2005~2014)

## 참고문헌

- 과학경제국(2016). 『대전경제 주요 지표』. 대전광역시.
- 김기선(1981), “고용”, 고시계 26(10), pp. 41-51.
- 김을식, 박경진, 조무상(2010). 『지역 고용통계의 현황 및 개선 방안』. 경기개발연구원.
- 김하경 외(2016). “16개 시도별 고용동향”. 지역고용동향브리프 2016년 봄호. 한국고용정보원.
- 남기곤(1998). “대전충청지역 노동시장 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남기곤·배진한·최효철·김기희(2014). 『대전지역 좋은 일자리 창출 및 확대 방안에 대한 연구』. 대전지방고용노동청.
- 남기성·오민홍·홍현균·황기돈(2008). 『지역노동시장의 구조와 차별성 연구』. 한국고용정보원.
- 남재량(2011). “최근 청년 니트(NEET)의 현황과 추이”. 월간 노동리뷰 2011년 3월호, p. 29-40. 한국노동연구원
- 대전광역시 5개 구청(2016). 『통계연보』.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2015). “대전의 최근 경제 활동 모습-생산, 분배, 소비, 고용 부분 분석”. 대전광역시.
- 대전발전연구원, 대전광역시(2016). 「월간 대전경제」.
- 방하남, 이영면, 김기현, 김한준, 이상호(2007). “고용의 질-거시.기업.개인 수준에서의 지표 개발 및 평가.”. 한국노동연구원.
- 배진한(2012). 『지역 일자리 미스매치의 원인과 대책』. 경남발전 통권 제120호.
- (2014). 『충남지역 산업 및 노동시장 구조의 특성과 변화』. 한국고용정보원.
- 심상완, 정성기(2007). “지역 노동시장 정보의 빈곤 극복을 위하여: 구.시.군 소지역 고용통계를 중심으로”. 노동정책연구 제7권 제4호.
- 이상헌(2008). “세계은행의 노동자 고용지표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국제노동브리프 6(8), p. 32-48.
- 이상호, 최효미, 윤미례(2012). 『지역노동통계 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최봉호(2009). “수요공급 측면에서 본 지역 통계의 문제점 및 발전 방안”. 보건복지포럼 2009. 11. p. 30-40.

최효철(2015). 『대전충남지역 청년층 노동시장의 특성 분석 및 청년층 취업활성화 방안』.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한국고용정보원(2014). 『행정통계포커스』.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노동연구원(2012). 『경남지역 고용실태 조사·분석 연구』. 경상남도.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2013). “대전지역 고용의 특징과 시사점”.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2013). “대전·충남지역의 고용구조 변화와 향후 과제”.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Okun, A.M.(1970). 『The Political Economy of Prosperity』, Norton, New York.

정책연구보고서 2016-47

---

## 대전지역 노동자의 고용 여건 I

---

발행인 유 재 일

발행일 2016년 11월

발행처 대전세종연구원

34863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85(선화동)

전화: 042-530-3523 팩스: 042-530-3528

홈페이지 : <http://www.djdi.re.kr>

---

인쇄: ○○○○○ TEL 042-○-○ FAX 042-○-○

---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